

碩士學位論文

칸트의 범주론에 대한 고찰

— 『순수이성비판』의 ‘개념의 분석론’을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高榮彩

2010年 2月

칸트의 범주론에 대한 고찰

— 『순수이성비판』의 ‘개념의 분석론’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梁 英 雄

高 榮 彩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高榮彩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2月

**Eine Untersuchung
über die Kategorienlehre Kants**

Yeong-Chae Go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Ung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0. 2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II. 범주의 원천	5
1. 선천적 인식의 의미와 징표	5
2. 선형적 논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범주	10
3. 사고의 논리적 형식	15
4. 범주의 체계	21
III. 범주의 적용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	28
1. 범주의 선형적 연역의 필요성	28
2. 순수한 통각의 통일	33
3. 범주 사용의 한계	38
4. 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	43
IV. 결론	49
참고 문헌	52
Zusammenfassung	55

I. 서론

사람들은 개념을 통해서 사고한다. 개념의 정의(定義)를 올바르게 알고서 사용해 야만 바르게 사고할 수 있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개념 자체가 아니라 개념을 낳게 하는 것, 즉 개념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 개념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칸트는 이와 같이 개념들의 정의와 출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개념의 근원을 탐구하는데, 그는 그것을 순수오성개념 즉, 범주(範疇: Kategorie)¹⁾라고 한다.

범주는 칸트가 고안한 개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차용한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원적 개념이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가 아니고 칸트의 범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논자가 칸트의 범주를 탐구하는 이유는 범주의 체계화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를 ‘결합되지 않은 낱말’이라고 단정하지만,²⁾ 범주의 출처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지는 않는다.³⁾ 이와 달리 칸트는 『순수이성비판』⁴⁾에서 범주의 출처를 밝히고 체계화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개념의 분석론’에서 다루어지는 범주의 연역이다.

범주의 연역은 오성(悟性: Verstand)⁵⁾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오성에 대

- 1) 칸트는 범주(範疇: Kategorie)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kategoria)로부터 차용한다. ‘kategoria’는 본래 ‘고발’, ‘고소’, ‘고발의 원인’이란 뜻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들』에서 범주라는 용어 대신에 ‘결합되지 않은 낱말들’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범주들은 생각할 수 있는 개념들 중 가장 일반적이고 으뜸가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존재하는 사물들을 모두 일정한 테두리 안에 묶어 넣은 기본 개념들이며, 가장 일반적인 개념들의 무리이기도 하다. 각 범주들은 서로 환원되지 않으며, 자신들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김진성 역주, 이제이북스, 2008, 16~24쪽 참조.
- 2) “결합되지 않은 낱말인 범주들은 저마다 있는 것(실체)을 나타내거나, 얼마만큼(양), 어떠한(질), 어떤 것에 얽힘(관계), 어디에(장소), 언제(시간), 어떻게 놓여 있음(농임세), 가진(소유), 입힘(능동) 또는 입음(수동)을 나타낸다.” 앞의 책, 32~33쪽.
- 3)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들』에서 각각의 범주의 정의만을 언급하는데, 그것도 서술 관계를 위주로 하여 실체, 양, 질, 관계의 범주들만이 주로 열거되며, 농임세와 소유의 범주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앞의 책, 33쪽 각주 참조.
- 4) 이 논문은 슈미트 판(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herausgegeben von Raymund Schmid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90.)을 원전으로 삼고, 최재희의 번역본(박영사, 2005.)과 백중현의 번역본(아카넷, 2008.)을 주로 참조했다. 이후에 이 책을 인용할 때 초판(1781년)은 A 다음에 쪽수로, 재판(1787년)은 B 다음에 쪽수로 간략히 표기한다.
- 5) 독일어 ‘Verstand’는 예전에는 대부분 ‘오성(悟性)’으로 표기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성(知性)’으로 표기되고

한 비판이다. 오성 능력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근대의 계몽정신을 담고 있다.⁶⁾ 칸트는 인식 능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각자가 인식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하기를 바란다. 이때 비판은 사고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작용을 담당하는 이성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 칸트는 인식 능력인 감성과 오성뿐만 아니라 비판의 도구인 이성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순수이성비판』이다. 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감성과 오성 그리고 이성에 대한 비판을 각각 선형적(transzendental)⁷⁾ 감성론, 선형적 논리학, 그리고 선형적 변증론으로 나누어 전개한다. 선형적 감성론에서는 감성의 수용적 형식인 공간과 시간에 대하여 언급하고, 선형적 논리학에서는 오성의 형식인 범주에 대하여 다루며, 선형적 변증론에서는 이성이 경험적인 영역을 넘어서 추리할 때 생기는 오류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개념을 낳는 범주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범주의 원천과 적용 범위 그리고 그것의 객관적 타당성을 밝힐 수 있다. 또한 범주와 관련된 칸트철학의 특징도 드러낼 수 있다. 논자는 칸트의 입장에서 범주를 고찰하되 칸트의 논지가 타당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주석가들의 견해를 들며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범주에 대한 칸트의

있다. 이러한 현재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성으로 표기한 이유는 칸트에 있어서 객관의 표상들이 직관에 촉발되어야 비로소 ‘Verstand’의 자발성에 의하여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논자는 오성의 ‘깨달다[悟]’는 의미가 ‘객관에 의해 촉발된 직관에 대해서만(오성에 주어진 직관에만) 오성이 작용하여 개념을 산출할 수 있다는 의미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백중현의 경우에 Verstand라는 독일어 자체가 라틴어 ‘intellectus’의 번역어이고, 또 이에 상응하는 영어가 ‘understanding’인 점을 고려하여 ‘지성’으로 번역한다. 카울바하,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백중현 옮김, 서광사, 2006, ‘옮긴이의 말’ 7~8쪽 참조.

6) 칸트에 있어서 계몽이란 자기 자신에서 기인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남이다. 여기에서 미성숙이란 타자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그리고 그 무능력의 원인이 오성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지도 없이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의 결여에 있는 경우에 그 무능력은 자기 탓이기 때문에, 칸트는 ‘과감히 분별하라!’(Sapere aude!), ‘너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라는 계몽의 표어를 주창한다.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Bd. 9,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53쪽 참조.

7)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나온 ‘transzendental’을 ‘선형적(先驗的)’으로 번역한다. 백중현의 경우에 ‘초월적(超越的)’으로 번역하는데, 논자는 ‘초월적’으로 번역할 경우에 인간의 경험적 인식이 아닌 신적(神的)인 인식에 관한 비약적(飛躍的)인 의미를 가지므로 ‘선형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중세의 신적인 인식 또는 신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칸트에 있어서 인식은 인간의 경험에 관한 인식이기 때문에 선형적이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칸트의 ‘transzendental’은 선천성(Apriorischen)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인데, 여기서 선천성은 대상이 대상임, 즉 모든 객관이 대상인 것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인식되는 객관만을 대상으로 규정함(대상의 타당성을 부여함)을 의미한다. Eisler, R., *Kant Lexikon*,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 New York, 1977, 583쪽 참조.

설명이 어떤 의도로 전개되었는지를 반성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논문은 칸트의 범주론에 대한 고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첫 번째 부분(II장)은 ‘범주의 원천’이라는 제목을 가지는데, 이 장에 속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천적 인식의 의미와 징표’라는 절(II장 1절)에서는 선천적 인식의 의미와 특징을 경험적 인식과 비교하면서 논의하고 순수한 개념인 범주가 선천적 인식을 통해서 발견됨을 전개한다. ‘선형적 논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범주’라는 절(II장 2절)에서는 선형적 논리학이 순수한 개념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순수한 개념인 범주도 선형적 논리학에서 다루어짐을 살필 것이다. ‘사고의 논리적 형식’이라는 절(II장 3절)에서는 범주가 위치하는 오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지적하고 범주의 모체(母體)인 판단표에 대하여 규명한다. ‘범주의 체계’라는 절(II장 4절)에서는 범주가 어떻게 판단에서 도출되는지를 알아보고, 범주의 목록을 드러낸다. 본론의 전반부(II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범주가 경험적인 속성을 가지지 않는가이고, 다음으로 범주는 왜 경험적인 개념이면 안 되는가이다. 그리고 범주는 왜 판단에서 도출되는가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범주의 원천과 관련하여 본론의 전반부에서 다룰 것이다.

본론의 후반부(III장)에서는 범주의 사용과 관련된 점들을 범주의 선형적 연역을 중심으로 다룬다. 본론의 후반부는 ‘범주의 적용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제목 아래에 네 개의 절로 구성된다. 먼저 ‘범주의 선형적 연역의 필요성’이라는 절(III장 1절)에서는 순수한 개념인 범주가 사고의 자발성에 근간이 되어 경험적 인식을 하는 데에 사용됨을 밝힌다. ‘순수한 통각의 통일’이라는 절(III장 2절)에서는 범주가 통각의 통일을 전제로 기능함을 드러낸다. ‘범주 사용의 한계’라는 절(III장 3절)에서는 범주의 사용 범위가 경험 가능한 감성적 직관 일반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이라는 절(III장 4절)에서는 구상력이 다양한 표상들을 범주와 일치하여 종합함을 규명한다. 본론의 후반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범주의 연역이 어떻게 가능한가이고 다음으로 인식과정에서 범주는 통각(Apperzeption)⁸⁾과 구상력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갖

8) 통각(統覺: Apperzeption)은 ‘나는 생각한다’는 나에 대한 단일한 표상이자 나 자신의 의식이다. 통각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반성(Reflexion)과 각지(覺知: Apprehension)로 나눌 수 있는데, 반성은 통각이 오성에 속할 경우를 일컫는 오성의 의식이고 각지는 통각이 감성에 속할 경우를 일컫는 내감이다. 칸트는 심리학을 내감에 대한 우리의 표상으로부터 우리 자신, 즉 경험적 통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반면에 그는 논리학을 ‘오성적 의식’(das intellektuelle Bewußtsein)으로부터 우리 자신, 즉 순수한 통각을 탐

는가이다. 특히 구상력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칸트의 인식론이 이성론과 경험론을 어떻게 종합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된다.⁹⁾

이 논문에서 범주에 대한 고찰은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과 선험적 연역을 다루는 『순수이성비판』 재판(1787년)의 ‘개념의 분석론’으로 한정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범주의 원천은 판단에서 범주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에 해당하고, 범주의 적용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은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 해당한다. 초판에서 찾을 수 있는 범주의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외한 이유는 범주에 대한 초판의 미흡한 설명에 대하여 재판에서 보다 더 확실히 보충하고 더불어 칸트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 때문이다.¹⁰⁾

구하는 학문으로 본다. Eisler, R., *Kant Lexikon*,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 New York, 1977, 34쪽 참조

- 9) 하이데거에 따르면, 심성의 두 근본원천들, 즉 감성과 오성만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두 줄기의 능력이 다. 하이데거는 선험론적인 연구 전체를 선험적 감성론과 선험적 논리학으로 양분하는 것이 이런 주제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구상력에는 고향이 없다고 한다. 하이데거,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6, 210쪽 참조. 구상력이 감성에 속한다고 한다면 칸트의 인식론이 경험론에 우위를 둔 이성론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상력이 오성에 속한다고 한다면 이성론에 우위를 둔 경험론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10) 칸트는 재판의 머리말에서 초판의 네 가지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을 언급한다. 그 첫 번째는 선험적 감성론에서 시간 개념의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주들의 연역에 있어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순수오성의 원칙들의 증명에서 충분한 명백성이 결여된 듯한 모습을 제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성적 심리학을 밀쳐낸 오류주리에 대한 곡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B XXXVIII 참조. 『순수이성비판』에서 ‘개념의 분석론’의 ‘제2장 순수오성개념들의 연역에 대하여’(A 84~130 / B 116~169)에서 초판의 많은 부분(A 94~130)을 삭제하고 재판(B 128~169)에서 새롭게 쓴다는 점에서 초판과 재판의 내용이 다르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칸트는 이 점에 대하여 서술방식만 다를 뿐 자신의 근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초판과 재판이 같다고 말한다. B XLII 참조.

II. 범주의 원천

1. 선천적 인식의 의미와 징표

칸트는 인식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체계가 학문이라고 규정하고서 학문이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인식의 가능성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식이 학문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가능성이 해명되지 않고서는 학문의 안전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학문의 안전성을 지식의 타당성에서 찾고자할 뿐 인식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학문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시쉬포스의 돌(Sisyphusstein)’을 끝없이 굴리면서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지식이 확실한 타당성을 확보했다라도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이 잘못된 기반에서 출발했다면, 우리가 알았던 지식들을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규명함으로써 학문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고찰하는 칸트의 범주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물음은 궁극적으로 범주의 본성에 대한 물음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은 주관에 주어진 객관에 대한 표상(表象: Vorstellung)¹¹⁾들이 객관과 일정하게 관계 맺는 데서 성립한다. 여기서 객관은 주관의 대응물이자 주관에게 인식되는 대상이고, 표상은 주관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에 대한 주관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인식은 객관적인 사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물의 표상에 대한 인식이다.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객관적 사물 자체가 아

11) 로크와 버클리는 관념(ideas)에 대해서, 혹은 인상(impression)과 관념(idea)에 대해서 말하지만, 칸트는 보통 ‘표상’에 대해서 말한다. 표상은 대체로 모든 의식 상태, 모든 심리적 사건을 말한다. 칸트는 ‘표상’이란 말을 언제나 일관된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가끔씩 개념처럼 의식 상태로는 도저히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 그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Wilkerson, T. E.,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 Commentary for Students*, Clarendon Press, Oxford, 1976, 15쪽 참조.

니라 그 사물에 대한 주관적 표상일 뿐이다.”¹²⁾

인식이 객관을 주관화하는 판단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점에서, 인식은 객관과 주관의 표상이 일치한다고 확신할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칸트에 따르면, 판단의 주관적 타당성은 확신과 관련해서 의견, 믿음, 앎이라는 세 단계를 갖는다. 의견은 객관적으로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불충분함을 의식하는 견해이고, 견해가 단지 주관적으로 충분하되, 객관적으로는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되면 믿음이고, 주관적으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충분한 견해는 앎이다.¹⁴⁾ 인식에서 지식이 성립하고 학문의 체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인식은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앎의 측면에서 인식을 다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식을 믿음이 아니라 앎이 되도록 만드는 매개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칸트는 믿음이 아니라 앎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경험이 표상과 객관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인식에 대한 칸트의 관심은 모든 인식이 경험과 관련하는가에 있다. 칸트는 경험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인식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것은 경험으로부터 갖는 인식인 경험적¹⁵⁾ 인식, 즉 후천적(後天的: a posteriori)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식인 선천적(先天的: a priori)¹⁶⁾ 인

12) 한자경, 『칸트 철학에의 초대』, 서광사, 2007, 29쪽.

13)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의견(doxa)은 현상계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에 관한 참다운 지식은 인식(episteme)이다. 따라서 의견은 상대적·감각적·우연적인 지식이며, 인식은 절대적·사변적·필연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질송, 『중세철학입문』,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7, 13쪽 옮김이 역주.

14) B 850 참조.

15) 칸트에 가서 ‘경험적(empirisch)’과 ‘경험(Erfahrung)’의 의미는 구분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경험적’은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는 감각적 기원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경험에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경험’은 감각적인(후천적인) 것과 비감각적인(경험 독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의 결합 산물임을 의미한다. 결국 전자의 경우가 가공되지 않은 일차적인 감각 자료들과 관계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가공된 이차적인, 말하자면 주관의 형식에 의해서 사고된 또는 해석된 정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바움가르트너,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읽기』, 임혁재·맹주만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4, 48쪽 참조. 칸트는 범주를 필요로 하는 경험적(empirisch) 판단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 한에서 ‘경험판단(Erfahrung)’이라고 하고, 주관적으로 타당할 뿐이라면 ‘지각판단(Wahrnehmung)’이라고 한다. 칸트에 있어서 객관적 타당성은 개념에 의해서 부여된다. 개념은 범주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점에서 지각판단의 경우에는 범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Kant, Immanuel,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in: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Bd. 5,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18 참조.

16) 라틴어 ‘a priori(아프리오리)’를 ‘선천적(先天的)’으로 번역한다. 아프리오리는 칸트 이전에는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와 논리적인 의미의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논리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개념으로부터’, ‘경험 없이 오직 사유를 통해 규정된’이란 의미와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히 경험에 앞서’란 의미가 공존했다. 그러나 칸트의 비판적인 선천주의(Apriorismus)에서 본다면 아프리오리는 시간적이거나 심리적 타당성이 아니라 논리적인 타당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오리는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경험으로부터

식이다. 칸트는 사람들이 선천적 인식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들은 자기 집의 토대 밑을 파 무너뜨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는 그 집이 무너질 것을 선천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바꿔 말해 그는 실제로 그의 집이 무너진 것의 경험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실제로 그는 완전히 선천적으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물체들은 무게가 있고, 따라서 그것들로부터 받침대를 제거하면, 그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미리 경험을 통해 그에게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니 말이다.” (B 2)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람들이 선천적 인식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인식이라고만 한정하기 때문에 선천적 인식에서 경험적 개념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선천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칸트가 말하는 선천적 인식은 경험적인 개념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인식이다.¹⁷⁾

칸트에 따르면, 선천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구분은 경험과의 관련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험의 속성을 다루는 것은 선천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징표(徵表: Merkmal)가 된다. 먼저 경험을 살펴보면, 경험은 어떤 것이 이러저러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뿐 그것이 그러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필연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칸트는 필연성이 경험적 인식과 대립항을 이루는 선천적 인식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험으로부터 얻는 인식은 귀납적인 추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지각했던 한에서’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예외 없이 타당함을 내포한다. 이

터 독립적으로 얻은’이란 의미를 지니며, 경험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타당함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Eisler, R., *Kant Lexikon*,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 New York, 1977, 38~39쪽 참조. 칸트철학에서 ‘선천적(a priori)’과 ‘선형적(transzendentally)’은 포함관계를 이룬다. 선형적인 인식이 선천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형적이 선천적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자가 아프리오리를 ‘선천적’으로 옮긴 이유는 앞서 각주 7)에서 ‘transzendentally’를 ‘선형적’으로 옮긴 것에 따라 중복을 피하고 기존 번역어를 사용해서 논리적 앞섬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7) 논자는 선천적(a priori) 인식과 순수한(rein) 인식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 칸트는 사람들이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의미에서 경험에 앞선 인식을 선천적 인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선천적 인식 속에 경험적 개념을 포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는 선천적 인식이 경험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인식이라고 강조하여 경험적 인식과 구분하고자 한다. B 2~3 참조.

것은 나아가 경험적 인식이 앞으로 예외를 가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험적 인식은 귀납적인 방식에 따른 상대적 보편성만을 준다.¹⁸⁾ 반면에 어떤 판단이 본질적으로 엄밀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보편성은 선천적 인식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칸트는 엄밀한 보편성을 필연성과 함께 선천적 인식의 징표로 삼는다. 선천적 인식을 질과 양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필연적이고 양적으로 보편적이다.

칸트는 필연성과 보편성을 가진 선천적 인식을 전제하고서 이러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념을 오성에서 찾는데, 그것이 바로 범주이다. 범주는 순수오성개념이라는 범주의 다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험을 기원으로 생긴 경험적 개념과 대립되는 순수한 개념으로 오성에 대한 선천적 인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선천적 인식의 징표가 필연성과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순수한 개념인 범주가 인식에 있어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¹⁹⁾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칸트가 선천적 인식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그것은 학문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이 선천적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연적이거나 우연적인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확실성 때문에 학문의 기반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²⁰⁾

칸트에 따르면, 범주는 경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주에 따라 경험적 인식이 이루어진다. 주관이 대상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인 범주를 지녔다는 것은 인식 가능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인식의 선천적인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질료[내용]에

18) B 3 참조.

19) 순수한 개념들은 책상, 의자 등과 같은 경험적 개념이나 삼각형, 원 등의 순수 감성적인 수학적 개념과는 달리 인간의 오성에 근거를 둔, 가령 인과성과 실체 등의 범주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실은 칸트가 '순수한 개념들의 수나 완전성의 문제보다 그러한 개념들을 인식 주체가 소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범주의 영역에서 각각의 개별 범주들의 정의를 피하고 인식과정에서 보편적인 범주의 사용에 중점을 둔다. 강영안, 「칸트의 초월철학과 형이상학」,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42쪽 참조.

20) 흄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학문들이 경험의 속성상 주관적 확신만을 가진다는 회의를 품는다. 이와 같이 경험적 지식에 대한 흄의 회의로 인해서 학문들은 존립 기반이 흔들릴 처지에 있었는데, 칸트는 물리학을 비롯한 모든 경험 과학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선천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관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선천적 종합판단은 선천적 인식의 두 가지 특징(필연성과 보편성)에서 지식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고, 종합적 인식에 의해서 지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천적 인식은 선천적 종합판단의 한 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대한 형식의 선재성(先在性)을 통해서 칸트가 인간의 자발적 인식능력을 중시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오성 안에 인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질료를 선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인식의 형식을 지닌다는 것이 바로 인식에 있어서 자발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칸트가 경험적 인식과 선천적 인식을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질료와 형식이라는 존재의 두 원리는 더 이상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물 자체의 구성 원리가 아니라, 경험 아래에서 유한한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현상(現象: Erscheinung)²¹⁾을 가능케 해주는 원리로 바뀐다.”²²⁾ 이와 같이 대상의 질료와 주관의 형식은 경험적 인식을 현상으로 한정하고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도록 만든다.

칸트는 현상에 대한 선천적 인식이 가능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형철학(transzendente-Philosophie)을 전개한다.²³⁾ 선형철학은 선천적 인식이 가능함을 선천적 개념의 체계를 중심으로 다룬다. 칸트가 선천적 인식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한 것은 현상에 대한 모든 인식이 선천적 종합판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선형철학의 구성을 살펴보면, 감성에 관한 학문인 선형적 감성론과 오성과 이성에 관한 학문인 선형적 논리학으로 나눌 수 있다. 선형적 감성론에서는 감성의 선천적 개념인 공간과 시간을 다루고, 선형적 논리학에서는 오성의 선천적 개념인 범주와 이성의 선천적 개념인 이념을 다룬다. 따라서 범주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선형적 논리학을 검토하여야 한다.

21) 칸트에 있어서 현상(現象)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현상, 즉 직관의 형식과 감각의 결합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Erscheinung)’(A 20 / B 34)이 있고, 또한 이 현상과 범주의 결합물로서 인식된 ‘현상(Phaenomenon)’(A 248~249)이 있다. 백종현, 「칸트: 현상의 존재론」,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115쪽 참조.

22) 박 진, 「칸트에 전해진 중세 스콜라철학의 유산」,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28~29쪽 참조.

23) 선형철학에서 ‘선형적’이란 대상에 관한 반성이 아니라 인식능력 그 자체의 자기비판, 즉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선형철학은 주어진 개념이 감성과 오성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별하는 이성의 비판적 반성을 통해 주관의 인식능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탐구, 즉 인식의 가능근거를 해명한다. 김영래, 「칸트 인식론에서 초월적 주관성」, 한단석 외 공저, 『칸트철학사상연구』, 형설출판사, 1995, 298쪽 참조.

2. 선형적 논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범주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범주를 언급하지만, 특히 ‘개념의 분석론’²⁴⁾에서 범주를 주로 다룬다. 개념의 분석론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전반부는 ‘모든 순수오성개념들을 발견하는 실마리에 대하여’라는 제목 아래 범주의 원천과 목록을 다루고, 후반부는 ‘순수오성개념들의 연역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범주 사용의 객관적 타당성과 범위를 제시해주는 연역의 문제를 다룬다.²⁵⁾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개념의 분석론이 ‘선형적 논리학’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선형적 논리학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칸트가 일반 논리학으로부터 선형적 논리학으로 이행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선형적 논리학에 관한 특징을 밝힘으로써 선형적 논리학이 다루는 범주의 특징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일반 논리학에서 왜 선형적 논리학으로 이행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논리학은 단순히 철학의 한 분과로만 간주되지 않았고, 학문 일반에 대한 입문 내지는 예비학으로서의 기능도 떠맡았다. 따라서 모든 학문의 예비학이라는 위치를 차지하는 논리학은 당대의 여러 학문들의 근본적인 흐름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칸트는 인식에 있어 오류를 피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논리학에서 찾

24) 『순수이성비판』의 구성을 살펴보면, 머리말(A I~XXII / B I~XLIV)과 서론(A 1~16 / B 1~30)을 제외하고 본문은 크게 선형적 요소론(A 17~704 / B 31~732)과 선형적 방법론(A 705~856 / B 733~884)으로 구분된다. 선형적 요소론(원리론)은 선형적 감성론(A 19~48 / B 33~73)과 선형적 논리학(A 50~704 / B 74~732)으로 구성된다. 또한 선형적 논리학은 선형적 분석론(A 64~292 / B 89~349)과 선형적 변증론(A 293~704 / B 349~732)으로 나뉜다. 다시 선형적 분석론은 개념의 분석론(A 65~130 / B 90~169)과 원칙의 분석론(A 130~292 / B 169~349)으로 구분된다. 『순수이성비판』에서 범주의 원천과 타당성 그리고 사용 한계를 다루는 부분, 즉 범주의 연역은 개념의 분석론에 해당한다.

25) 칸트에 따르면, 개념의 분석론에서 ‘모든 순수오성개념들을 발견하는 실마리에 대하여’는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에 해당하고, ‘순수오성개념들의 연역에 대하여’는 범주의 선형적 연역에 해당한다. B 159 참조. 『순수이성비판』의 초판에서 범주의 연역은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관적 연역에서는 범주를 주관의 오성과 관련해서 고찰하고, 객관적 연역에서는 대상과 관련해서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한다. 칸트는 객관적 연역을 범주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는 사고하는 능력 자체를 인정하고 오성과 이성이 일체의 경험을 벗어나서 무엇을 얼마만큼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의 범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A XVI~XVII 참조.

26) 김수배, 「칸트철학의 선구자 불프」, 『칸트와 그의 시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21쪽 참조.

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가 범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고의 형식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학문인 논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칸트가 개념의 형식을 다루는 학문인 논리학으로부터 근본 개념인 범주도 논리학과 같은 체계를 갖춘 학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점이다. 칸트는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은 완전한 학문으로 생각한다.²⁷⁾ 나아가 그는 논리학이 탐구의 대상에서 질료와 형식 모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형식에 한정하기 때문에 완결된 체계를 이룰 수 있음을 발견한다.

칸트는 대상으로부터 얻는 인식의 질료들이 경험에 따라 다르게 수용됨을 인정한다. 또한 그는 대상을 수용하고 규정하는 인식 주체의 형식이 똑같이 동일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칸트는 대상을 수용하는 형식은 감성론에서 밝히고 대상을 규정하는 형식은 논리학에서 찾는다. 특히 그는 대상을 규정하는 형식의 완전성에 대하여 논리학의 체계에 의존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사고의 모든 형식적 규칙만을 다룰 뿐이고, 인식 대상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논리학의 형식을 대상 인식에 적용하게 되면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는 반쪽짜리 인식만을 얻을 뿐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인식의 완전한 체계를 위해서 사고의 형식만이 아니라 대상의 존재 방식을 다루는 선험적 논리학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응용 논리학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선험적 논리학인가라고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칸트철학에 있어서 ‘선험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선험적이란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선천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선험적인 것은 선천적인 모든 인식이 아니라, 단지 선천적인 인식에 의해 어떤 표상들이 오로지 선천적으로 적용된다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⁸⁾ 이러한 점에서 선천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²⁹⁾ 그러므로 선천적인

27) B VIII 참조.

28) B 80.

29) 칸트에 있어서 선험적이라는 용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인식 능력에 대한

것은 존재(대상)와 관련된 용어이고 선형적인 것은 사유(인식)와 관련된 용어이다. 이와 같이 선형적이란 선천적 인식을 가능하게 함을 뜻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험적 인식에 앞서 선천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순수한 개념인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 선형적 논리학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주는 인식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인식의 과정 속에서 범주를 고찰할 때, 인식과 더불어 범주의 사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은 마음의 두 능력을 원천으로 한다. 하나는 표상들을 받아들이는 감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받아들인 표상들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오성이다. 감성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표상들이 주어지고, 오성에 의해서 감성을 통해 주어진 표상이 사고된다. 감성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직관(直觀: Anschauung)³⁰⁾이고, 오성에 의해 사고되는 것은 개념인데, 칸트에 있어서 모든 인식은 직관과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직관과 개념은 주관이 대상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인식의 구성요소이다. 칸트는 인식을 위해 감성의 직관과 오성의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성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대상도 주어지지 않을 터이고, 오성이 없다면 아무런 대상도 사고되지 않을 터이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B 75)

칸트에 의하면, 감성과 오성은 각각의 역할을 서로 바꿀 수가 없고, 인식은 감성과 오성이 통일될 때만 생길 수 있을 뿐이다. 칸트는 감성적 직관의 순수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오성적 사고의 순수형식인 범주와 날카롭게 분리하여 양자의 몫이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 나아가 감성과 오성의 구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

인식을 의미한다. Kant, Immanuel,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in: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Bd. 5,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13 주석III 참조.

30) 하나의 표상은 하나의 의식 상태, 하나의 경험이다. 표상 중 어떤 것은 잔상(殘像: after-images)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념(思念: thoughts)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고통 같은 육체적인 감각일 수도 있다. 인식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감각-인상, 즉 외적 세계의 지각인 경험이다. 혹은 감각-인상을 ‘인상(印象: impressions)’이라고 부르고, 현대 철학자는 ‘감각-자료(sense-data)’라고 부르며, 칸트는 ‘직관(intuitions)’이라고 부른다. Wilkerson, T. E.,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 Commentary for Students*, Clarendon Press, Oxford, 1976, 15~16쪽 참조.

의 학문을 정립하여 감성 규칙들 일반³¹⁾에 대한 학문을 감성론(Ästhetik)이라고 부르고, 이성 규칙들 일반의 학문을 논리학(Logik)이라고 부른다.

칸트가 가진 논리학에 대한 관심은 인식의 형식이 인식의 대상에 선천적임을 강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말하자면 칸트는 인식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에 대한 대상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칸트의 현상 인식은 인식의 대상이 인식과 함께 존재하고 인식이 없다면 현상도 없다. 이러한 현상 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의 대상이 없어도 인식도 더불어 없어지지만, 인식이 없어지더라도 인식의 대상이 없어지는 않는다고 본다.³²⁾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식의 대상에 대한 선천적 대상성을 인식의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칸트와 상반된 인식의 형식과 대상의 관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입장이 엄밀하게 다른 이유는 칸트가 현상과 사물 그 자체의 인식을 구분한 것에서 비롯된다. 칸트는 현상에 있어서만 인식의 형식이 인식의 대상에 선천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적 인식은 사물 그 자체(Ding an sich)와 현상을 구분하는 척도이고, 현상의 가능성을 인식의 형식에서 찾는 전제가 된다.

현상이 경험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칸트의 인식론에서 감성에 의해 받아들여진 현상인 인식 대상은 일반 논리학과 선형적 논리학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일반 논리학에서는 인식 대상의 사고 형식만을 다루지만 선형적 논리학에서는 인식 대상이 현상되는 방식도 다룬다. 여기서 우리가 범주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칸트가 선형적 논리학에서 대상 일반이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의 근원을 묻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물음은 대상의 인식 방식과 존재 방식의 일치를 전제로 하지만 칸트는 존재가 인식보다 더 많은 내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식과 존재가 일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인식이 존재의 현상과 일치한다는 점만을 동의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그는 대상의 존재방식이 아니라 대상의 현상방식의 유형을 다루는 선형적 논리학을 전개한

31) 우리는 칸트의 용어인 'überhaupt'을 '일반'이라는 말로 번역한다. 아이즐러에 따르면, 'überhaupt'는 특별하거나 개별적인 조건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 특수성, 차이성 없이 보편적으로 파악된 것을 의미한다. Eisler, R., *Kant Lexikon*,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 New York, 1977, 544 쪽 참조.

32)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들 · 명제에 관하여』, 김진성 역주, 이제이북스, 2008, 57쪽 참조.

것이다. 칸트는 선험적 논리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아마도 선천적으로 대상들과 관계 맺는 개념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곧 순수한 직관도 아니고 경험적 직관도 아닌, 순수 사고의 작용들, 그러니까 경험적이지도 감성적이지도 않은 근원을 갖는 개념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미리 그에 의해 우리가 대상들을 온전히 선천적으로 사고하는 순수 오성인식과 순수이성인식의 한 학문 이념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의 근원과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학문은 선험적 논리학이라고 일컬어져야 할 것이다.” (B 81~82)

여기에서 범주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선천적으로 대상들과 관계 맺기 때문에 경험적이지도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은 개념이 선험적 논리학에서 다루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이 범주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선험적 논리학에서 범주의 근원과 범위 그리고 객관적 타당성을 밝힐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험적 논리학에서 범주를 고찰한다는 것은 선험적 비판을 통해 선천적 개념과 선천적 인식방식을 분석함을 의미한다.³³⁾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논리학’에서 범주를 다루는 ‘개념의 분석론’은 선험적 논리학을 구성하는 ‘선험적 분석론’과 ‘선험적 변증론’³⁴⁾ 중에서 선험적 분석론에 속한다.³⁵⁾

칸트에 의하면, 선험적 분석론은 선천적 인식의 요소인 순수한 개념, 즉 범주

33) ‘선험적 비판’을 담고 있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은 대상 자체의 성격보다 대상에 관한 우리의 ‘선천적 개념들’(A 11~12) 혹은 ‘인식 방식’(B 25)에 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강영안, 「칸트의 초월철학과 형이상학」,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43쪽 참조.

34) 선험적 논리학이 오성을 통해서 경험 가능한 인식 대상의 형식과 내용을 다루는 ‘진리의 논리학’이라면, 선험적 변증론은 이성에 주어지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환상’(A 298 / B 354)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오류를 검토하는 ‘가상(假象)의 논리학’이다. 또한 선험적 변증론은 인식의 내용에 관해서는 공허하고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위한 기준인 일반 논리학이 객관적인 주장들을 실제로 산출하기 위해서 오류됨을 지적한다. 선험적 변증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성의 본성에 근거를 둔 허위적 추리인 오류추리이고, 두 번째는 변증적 추리를 할 때의 이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율배반이며, 세 번째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근원존재자’, ‘최고존재자’,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자’에 대한 변증적 이성추리인 이상(Ideal)이다. B 398 참조.

35)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대상인 현상과 인식 불가능한 대상인 사물 그 자체 개념의 구별은 선험적 분석론과 선험적 변증론의 구분을 명백히 한다. 따라서 선험적 분석론에서는 경험 가능한 현상에 한하여 오성의 기능을 다루고, 선험적 변증론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물 그 자체와 같은 이념을 대상으로 삼는 이성의 기능을 다룬다. 최인숙, 「칸트의 오류추리론」,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261쪽 참조.

를 다루는데, 범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발견되는 범주의 특징은 감성이 아니라 오성에 속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범주가 근원적 요소 개념이기 때문에 파생되거나 합성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끝으로 세 번째 특징은 오성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포괄하는 개념들을 분류하여 완벽한 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범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범주의 거소(居所)인 오성을 분석하도록 하자.

3. 사고의 논리적 형식

오성의 분석은 오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피는 데에서 시작한다. 칸트는 오성이 사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고에 관한 모든 기능을 고찰하면 사고와 관련된 오성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사고의 매개물인 개념을 분석하여 사고의 기능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칸트가 개념의 분석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오성 기능의 체계를 드러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³⁶⁾ 그런데 칸트에 있어서 개념을 분석하여 근원 개념을 찾는다는 것은 종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개념을 포함하는 유개념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종개념은 동일한 징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로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어 개념들의 특수성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유개념은 개념들을 포괄하는 공통점을 나타내어 개념들의 보편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인식을 표현하는 판단은 개념들을 통일하는 작용이다. 판단을 위한 개념들의 통일 작용은 유개념을 발견하려는 개념들의 통일 작용과 유사하다. 그런데 칸트는 판단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개념들이 대상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직관 이외에 어떤 표상도 직접적으로 대상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개념은 대상에 대한 직관 표상과 관계 맺을 뿐이다. 그러므로 칸트가 보기에 대상을 개념으로 판단한

36) 칸트는 범주가 사고의 형식이기 때문에 지각에서 추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사고의 형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고를 이루는 개념과 판단을 조사한 것이다. 퀴르너, 『칸트의 비판철학』,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7, 54쪽 참조.

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지각표상을 개념표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에 있어서 인식이 표상작용임을 드러내고, 인식된 표상이 감성적인 면과 오성적인 속성을 모두 가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판단이란 대상의 표상(직관)에 대한 표상(개념화)이다.³⁷⁾ 칸트는 판단 내에서 개념이 표상들을 포함하는 것을 표상들의 통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컨대 ‘모든 물체는 가분적(可分的)이다’는 판단에 있어서 가분성이라는 개념은 이 판단을 벗어나서 가분성을 가진 서로 다른 여러 개념들과 관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단에서는 물체라는 개념과만 관계 맺는다. 그리고 이 물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판단에서 물체에 속하는 대상들은 가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매개적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모든 판단들은 우리 표상간의 통일 기능들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직접적인 표상 대신에 이 표상과 그 외의 더 많은 표상들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표상이 대상 인식을 위해 사용되고, 그로써 많은 가능한 인식들이 한 인식 안에서 집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B 93~94)

칸트에 따르면, 물체라는 상위 표상은 나무, 돌, 쇠 등의 하위 표상들을 포함한다. 상위 표상이 하위 표상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명제의 주어 개념[물체] 속에 유개념이 종개념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사고 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물체라는 상위 표상[대상] 속에 하위 표상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각각 다른 하위 표상들이 가진 공통적 속성[가분성]을 술어 개념으로 하여 주어 개념을 통일시킴을 알 수 있다. 결국 판단은 주어[대상]에 포함된 개념들[하위 표상]을 공통적인 술어로 통일하는 것이다.

칸트는 판단의 통일 기능을 주목하여 판단에서의 통일 기능들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오성의 기능들이 모두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칸트가 판단에서 오성의 기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판단과 인식의 표리 관계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칸트는 판단 일반의 모든 내용을 제외하

37) B 93 참조.

고 오직 판단에서 순전한 오성의 형식만 주목해서 논리적 사고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항(項: Titel)으로 분류하고, 각 항마다 세 개의 목(目: Moment)을 소유한다고 말한다.³⁸⁾

1. 판단들의 양(量: Quantität)

전칭(全稱: Allgemeine)

특칭(特稱: Besondere)

단칭(單稱: Einzelne)

2. 판단들의 질(質: Qualität)

긍정(肯定: Bejahende)

부정(否定: Verneinende)

무한(無限: Unendliche)

3. 판단들의 관계(關係: Relation)

정언(定言: Kategorische)

가언(假言: Hypothetische)

선언(選言: Disjunktive)

4. 판단들의 양상(樣相: Modalität)

개연(蓋然: Problematische)

실연(實然: Assertorische)

필연(必然: Apodiktische)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분류는 선형적 논리학의 분류이지 일반 논리학의 분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반 논리학은 각 항에 두 개(앞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판단목만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항의 처음 두 개의 판단목도 선형적 논리학에서 산출된 사고의 논리적 기능을 드러내지만, 특히 세 번째 판단목은 일반 논리학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각 항 중의 세 번째 판단이 앞의 둘을 종합한 것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헤겔이 칸트의 판단표에서 변증법적 지양(止揚: Aufhebung)을 착안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³⁹⁾ 이런 점을 주목하여 선형적 논리학에서 새롭게 추가

³⁸⁾ B 95 참조.

³⁹⁾ 헤겔은 '개념의 운동'을 통해서 사고의 기초적 규정들을 제시한다. 그에게 있어 모든 개념들은 논리적인

된 각 항의 세 번째 판단을 살핀다면 선형적 판단의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반 논리학에서 판단의 양(量)은 술어 개념이 주어 개념 '전부'를 규정하는가, '일부'만 규정하는가를 살핀다. 그러나 선형적 논리학은 술어 개념에 의해 규정되는 주어 개념의 수를 구별하여 '전부'의 내용도 구분한다. 판단의 양을 형식상으로 나타내면, 판단에서 주어 개념이 모두를 지칭할 경우 '모든 X는 Y이다'라는 전칭 판단이고, 또한 주어 개념이 몇몇을 가리키면 '몇몇의 X는 Y이다'라는 특칭 판단이며, 주어 개념이 하나만을 가리키면 'X는 Y이다'라는 단칭 판단이다. 여기에서 단칭 판단들은 주어가 외연을 전혀 갖지 않고 수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술어 개념이 하나 뿐인 주어 개념 '전부'에 관계한다는 점에서 주어에 모두라는 외연을 가지기 때문에 술어 개념이 주어 개념 '전부'와 관계하는 전칭 판단과는 형식상으로 같다. 물론 단칭 판단은 술어 개념이 주어 개념 '전부'와 관계한다는 점에서 판단의 술어가 주어 개념 아래 포함되어 있는 것의 단지 '일부'에만 관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제외되는 특칭 판단과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 논리학에서는 형식적 포함관계만을 고려하여 단칭 판단과 전칭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칭 판단과 전칭 판단을 구별하지 않지만, 선형적 논리학에서는 대상에 대한 수의 내용도 다루기 때문에 전칭 판단과 단칭 판단을 엄격히 구별한다. 그러므로 전칭 판단은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체를 일컫는데 비해, 단칭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전체를 지칭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부분 즉, 하나를 지칭한다.

판단의 질(質)을 살펴보면, 일반 논리학의 판단은 주어 개념에 대한 성질을 술어 개념으로 형식상 긍정이나 부정으로 나타낸다. 이들 두 판단의 결합에 의해서 선형적 논리학의 무한 판단이 산출된다.⁴⁰⁾ 무한 판단은 형식상으로는 술어 개념이 주어 개념을 긍정하더라도 술어 개념 자체를 내용상으로 부정한다. 예를 들어 무한 판단인 '영혼은 불사적(不死的)이다'라는 명제의 경우에 주어 개념을 형식상 불사적인 것으로 긍정하지만, 술어 개념의 내용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운동에 의해서 자신의 반대 부분으로 자연히 흘러가고, 개념과 그것의 반정립은 종합적 사고로 지양된다. 회페, 『임마누엘 칸트』, 이상현 옮김, 문예출판사, 1998, 346쪽 참조.

40) 무한 판단은 대상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긍정적인 제한을 나타내지만 내용상으로 부정적인 무한을 나타낸다. 칸트는 이와 같이 대상을 형식상으로 긍정하지만 내용상으로 부정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상의 규정에는 적극적인 규정과 소극적인 규정이 있는데, 칸트는 형식상으로는 내용상으로도 긍정하는 적극적인 규정만큼이나 소극적인 규정도 또한 의미 있다고 본다. 특히 경험할 수 없지만 사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유는 대개 이러한 무한 판단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사물 그 자체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와 같이 무한 판단의 형식을 지닌다.

죽는 것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⁴¹⁾ 무한 판단에서 술어 개념을 통해서 주어 개념을 제한할 때, 가사적(可死的)인 것은 가능한 존재자의 모든 외연 중의 일부를 이루고, 반면에 불사적인 것은 나머지를 이룬다. 그러므로 ‘영혼은 불사적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영혼은 가사적인 것 모두를 제거하고 나서 남는 무한히 많은 불사적인 것에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무한 판단은 모든 가능한 존재자의 무한한 영역에서 가사적인 것을 제거한 뒤에 남은 가사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라는 외연에 영혼을 놓아서 제한한다. 그러므로 무한 판단은 대상을 소극적으로 제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된 것 이외의 무한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판단에 나타난 사고의 관계 기능을 살펴보면, 일반 논리학의 판단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⁴²⁾ 근거와 귀결의 관계만을 나타내지만 선험적 논리학은 하나의 판단 내에 있는 ‘모든 구분지(區分枝)’(der gesammelten Glieder der Einteilung) 상호간의 관계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의 경우에 주어와 술어의 관계는 ‘X는 Y이다’라는 정언 판단이 있고, 근거와 귀결의 관계는 ‘X가 Y이면, Z는 T이다’라는 가언 판단이 있지만, 선험적 논리학의 경우에는 이 두 판단 외에 구분지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X는 Y이거나 Z이거나 T이다’라는 선언 판단이 있다. 칸트에 따르면, 선언 판단 내의 구분지들은 주어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술어 개념들이고 구분지간의 관계는 상호적이다.⁴³⁾ 왜냐하면 하나의 구분지가 다른 구분지와는 배타적이지만, 동시에 각각의 구분지들이 선언 판단에 포함되어야 완전한 인식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구분지는 완전한 인식을 위해 전체의 구분된 영역을 이룬다. 칸트는 이러한 선언 판단의 예로 ‘세계는 맹목적

41) B 97 참조.

42) 칸트에 따르면, 판단이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념과 개념의 관계이다. 만약 우리가 대상을 지칭하고 있는 주어 개념을 단순히 모순율에 위배됨이 없이 분석하여 그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을 결합한다면 이러한 결합은 하나의 분석 판단을 형성한다. 이런 분석 판단의 경우는 주어 개념을 분석해서 술어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경험과 상관없이 개념의 분석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종합 판단의 경우는 술어 개념이 주어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의 공통점을 연결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험이다. 종합 판단은 선천적 종합 판단과 후천적 종합 판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천적 종합 판단에서는 경험만으로 주어와 술어 개념을 연결하지만 선천적 종합 판단의 경우에는 경험이 아니라 사고의 형식, 즉 범주가 그 기능을 한다. 오은택, 「칸트에서 범주의 선천적 연역」,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2쪽 참조.

43) “선언 판단은 둘 혹은 더 많은 명제들 상호간의 관계를 내용으로 갖는다. 그 관계는 한 판단의 영역이 다른 판단의 영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논리적인 상호 대립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합쳐져야 원래 인식의 영역을 채운다는 점에서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B 99)

인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또는 내적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거나, 또는 외적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든다. 이 명제들 각각은 세계의 존재 일반에 관한 가능한 인식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것들 모두가 합해져서 전체 영역을 이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참된 인식을 규정한다. 우리는 선언 판단에 담긴 인식의 보편성을 통해서 칸트의 진리관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판단이 진리를 담으려면 그 대상에 대하여 규정가능한 모든 구분지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판단은 술어의 형태에 따라 사고의 양상기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사고의 양상은 앞선 사고의 기능(양, 질, 관계)과는 달리 판단의 내용에 상관없이 연결어(Kopula)의 가치만을 다룬다. 일반 논리학에서 판단의 양상으로 개연 판단과 실연 판단을 들 수 있다. 개연 판단은 긍정하든 부정하든 대상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X는 Y일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가능성을 표현하는 판단이고,⁴⁴⁾ 실연 판단은 대상을 현실적인 것으로 고찰하는 'X는 Y이다'라는 논리적 실재성 내지는 진리성을 표현하는 판단이다. 선형적 논리학에서는 이 두 판단의 종합에 의한 필연 판단을 가진다. 필연 판단은 대상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X는 반드시 Y이다'라는 논리적 필연성을 표현하는 판단이다.

이처럼 모든 판단이 네 개의 판단항(양, 질, 관계, 양상)에 속하고 각각 판단항 안에 있는 세 개의 판단목 중 단지 하나의 목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가능한 판단의 형식은 81가지가 된다.⁴⁵⁾ 이 경우에 "소크라테스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판단은 '단칭적 · 무한적 · 선언적 · 필연적인 판단'으로 81가지 판단 중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간의 상호적 관계를 인정할 경우에 우리는 모든 인식이 네 개의 판단항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모든 인식이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이 판단항들을 벗어나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식이 제한적이고, 또한 각 판단항에서 하나의 판단요소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이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44) "개연 판단은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순전히 가능한(임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판단이다."(B 100) 겔트제처(Lutz Geldsetzer)에 따르면, 칸트의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관념은 실연 판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 판단을 통해서 가능하다. 겔트제처, 『논리학』, 문성화 옮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283~284쪽 참조.

45)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edited by C. Lew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76쪽 참조.

칸트가 판단에서 사고의 기능을 찾은 이유는 사고가 판단의 형식으로 언표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판단을 통해서 사고의 기능을 찾는 것은 타당하다. 칸트는 사고의 기능을 규정하기 위해서 판단이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여 판단을 분석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성의 기능을 사고의 기능에서 찾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더라도, 과연 판단에서 사고의 논리적 기능들이 모두 밝혀졌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한 판단에서 사고의 논리적 기능을 발견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우연적인 방법에 의한 도출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칸트가 사고의 기능들 중에 빠뜨린 부분은 없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우리는 이러한 사고 기능들이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할 경우에 판단에서 범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칸트의 주장은 단지 가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범주가 선천적 개념이라는 근본적 가정조차도 흔들린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며 범주의 체계를 살피고자 한다.

4. 범주의 체계

칸트에 따르면, 범주는 오성을 사용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오성의 형식인데, 만약 범주에 어떠한 대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논리적 형식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범주는 주관과 객관에 관하여 각각의 형식을 취하는데, 주관에 있어서는 논리적 사유의 형식이지만 객관에 있어서는 존재가 현상되는 형식인 것이다. 주관의 측면에서 범주가 논리적 사유의 형식이라고 했을 때 범주의 체계는 이미 앞선 절(3절)에서 판단표로 설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상과 관련하여 범주의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상이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관의 ‘다양한 표상들(das Mannigfaltige)’⁴⁶⁾인데, 이 다양한 표상들이 종합되었을 때 직관 일반이 성립하고

46) ‘das Mannigfaltige’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가지각색인 것들’, ‘여러 가지인 것들’, ‘잡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순수이성비판』에서 표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논자는 ‘다양한 표상들’이라고 풀어서 사용한다. 이 용어에 대한 번역어로는 다양과 잡다가 쓰이는데, 최재희의 경우에는 ‘다양(多様)’으로, 백중

범주의 적용이 가능하다. 오로지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만 감성에게 대상의 표상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과 시간은 대상의 개념을 촉발한다.⁴⁷⁾

그러나 감성이 개념의 내용을 촉발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개념 자체를 산출하는 것은 오성이다. 개념의 산출은 종합된 표상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표상들의 종합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주어진 표상들은 분석에 앞서 우선 종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이 있어야만 인식의 질료들을 일정한 내용으로 통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합이 없다면 우리는 표상들을 통일할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인식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상력(構想力: Einbildungskraft)⁴⁸⁾이다. 구상력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는 III장의 4절에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구상력은 감성의 촉발에 의해서 받아들인 다양한 표상들을 대상이 현존여부와 상관없이 직관에 표상하는 능력이다. 일단 직관에 들어온 다양한 표상들은 구상력에 의해서 종합 재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력은 범주라는 규칙에 따라 작용하기는 하지만, 감성 아래에서만 직관을 종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성에 속한다.⁴⁹⁾

구상력이 표상들을 종합한다고 해서 개념까지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상력의 작용은 감성을 벗어날 수 없어서 종합된 표상들을 개념으로 통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합된 표상들은 오성의 통각에 의해서 범주에 일치하여 개념

현의 경우에는 ‘잡다(雜多)’로 번역한다. 이에 따라 『순수이성비판』에서 표상의 종합을 의미하는 ‘다양(잡다)의 종합’(B 103~105), 직관 내의 표상을 나타내는 ‘직관의 다양(잡다)’(B 105), 표상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표상들의 다양(잡다)’(B 129), 현상에 속하는 표상을 지시하는 ‘현상들의 다양(잡다)’(B34)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에 강조되는 것은 표상이 아니라 표상이 지닌 형태나 속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논자는 표상을 주목하여 각각 ‘다양한 표상들의 종합’, ‘직관의 다양한 표상들’, ‘다양한 표상들’, ‘현상들의 다양한 표상들’이라고 표현한다.

47) 공간과 시간이 개념의 내용을 촉발한다는 것은 개념으로 포함될 표상들이 공간과 시간상에 놓임으로써 어떠한 형태 또는 순서를 가지고 개념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내용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주, 『칸트의 인식론』, 철학과현실사, 2001, 229쪽 참조.

48) ‘Einbildungskraft’은 영어 표기로 ‘imagination’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상상력(想像力)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상력’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구상력의 기능이 표상들을 종합하여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상(像)들을 경험과 관계없이 생각해낸다는 의미를 지닌 상상력보다 그 기능을 잘 표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9) 감성과 오성은 이질적이어서 중간에 제3의 것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근대 이성론자들과 경험론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칸트는 감성과 오성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양자를 매개하는 것으로 구상력을 든다. 문성학에 따르면, 칸트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간은 감성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유한하고 감성의 조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하다. 이러한 점에서 문성학은 인간이 감성과 오성이라는 이질적 양극성을 가진 구상력 일원체라고 말한다. 문성학,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15쪽 참조.

으로 통일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범주에 의해서 비로소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인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범주는 순수한 종합을 통해서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종합도 또한 선천적인 종합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선천적인 종합적 통일을 목적으로 범주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주관의 측면에서 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나는 생각한다’는 순수한 통각에 의한 필연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을 전제해야 한다.

이상의 인식과정을 정리하면 객관에 대한 표상들이 감성에 주어지고, 감성의 구상력이 범주에 따라서 직관을 종합하며, 통각은 범주에 따라서 표상들을 개념으로 통일하여 대상을 규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감각기능에 의한 개관, 구상력에 의한 종합, 통각에 의한 통일이 인식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⁵⁰⁾ 칸트에 따르면, 모든 대상들에 대한 인식을 위해 선천적으로 주어져야 할 첫 번째 것은 순수한 직관의 다양한 표상들이고, 두 번째 것은 구상력에 의한 다양한 표상들의 종합이다. 그러나 순수한 직관의 다양한 표상들과 그 종합만으로는 인식을 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종합에 통일성을 주는 개념들인 범주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세 번째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오성은 사고의 논리적 기능들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그것으로써 오성의 능력이 완전히 측정되기 때문에 순수오성개념의 수도 모든 가능한 판단들에 있어서 논리적 기능들의 수효만큼 생긴다. 칸트는 범주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범주표로 나타낸다.⁵¹⁾

1. 양(Quantität)의 범주들

단일성(Einheit)

수다성(Vielheit)

전체성(Allheit)

50) 칸트에 따르면 인식은 감각기능(Sinn), 구상력 그리고 통각이라는 영혼의 능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들 인식능력이 수행하는 작용을 살펴보면, 감각기능에 의해서 선천적 공간과 시간 표상에 다양한 표상들이 개관(概觀: Synopsis)되고, 구상력에 의해서 이 다양한 표상들이 종합되며, 근원적 통각에 의해서 이 종합이 통일된다. A 94 참조.

51) B 106.

2. 질(Qualität)의 범주들

실재성(Realität)

부정성(Negation)

제한성(Limitation)

3. 관계(Relation)의 범주들

속성과 자존성(Inhärenz und Subsistenz)

[실체와 우유성: substantia et accidens]

원인성과 의존성(Kausalität und Dependenz)

[원인과 결과: Ursache und Wirkung]

상호성(Gemeinschaft)

[능동자와 수동자 사이의 상호작용

: Wechselwirkung zwischen dem

Handelnden und Leidenden]

4. 양상(Modalität)의 범주들

가능성(Möglichkeit) — 불가능성(Unmöglichkeit)

현존성(Dasein) — 비존재성(Nichtsein)

필연성(Notwendigkeit) — 우연성(Zufälligkeit)

칸트에 따르면, 오성은 선천적으로 자기 안에 범주들의 목록을 함유하고 있다. 범주에 의해서만 직관의 다양한 표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객관에 대한 직관을 사고할 수 있다. 칸트는 이러한 범주의 분류를 판단력이라는 인간의 공통 원리로부터 체계적으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체계 없이 무작위하게 산출한 것을 비판한다.⁵²⁾ 만약 순수오성개념들의 목록인 범주표가 귀납적으로 추리된다면, 어느 누구도 범주의 목록이 완전히 망라되었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귀납적 추리는 경험을 수집하여 체계를 정립하므로, 우리가 이러한 체계를 정립하기에 앞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범주의 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범주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귀납적으로 범주들을 선택했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범주를 판단 형식의 여러 종류를 길잡이로 해서 칸트가 유도한 것

52)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10개의 범주들(실체, 질, 양, 관계, 능동, 수동, 시간, 장소, 상태 내지 위치, 소유 내지 태도)을 작성한 이후에 5개(대립, 선차성, 동시성, 운동, 소유)의 후술어(後述語: Postprädikamente)를 보냈더라도 이것들은 감성의 개념들[시간, 장소, 위치, 선차성, 동시성]과 경험적 개념[운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주를 순수한 개념이라고 보는 칸트에 의해 비판을 받는다. B 107 참조.

이 과연 전체의 사고 기능을 포함하는가라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칸트에 의하면, 범주표는 오성의 모든 요소개념들을 완벽하게 함유하고 있고, 인간 오성 안에 있는 요소개념들에 대한 체계의 형식을 함유하고 있다. 범주는 판단에서 사고의 기능임과 동시에 존재를 서술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윌커슨(T. E. Wilkerson)은 이러한 칸트의 입장을 아주 회의적으로 검토한다. 그는 주리와 우리의 대상 인식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려는 칸트의 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⁵³⁾ 윌커슨은 논리학의 개념과 경험의 개념 사이에는 어떠한 밀접한 연관도 기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상 칸트가 제시하는 판단표와 범주표를 잘 비교해 보면 연관을 발견하리라는 어떠한 확신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명제의 특정한 부분을 기술하고 관련시키기 위해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우리 주위에 있는 대상을 기술하기 위해 경험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선형적 논리학의 판단표는 주관의 사고형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판단표와 범주표는 형식상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왜냐하면 범주표는 객관의 현상형식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커슨이 단순히 논리적 개념과 경험적 개념의 불일치를 주장하며, 칸트의 범주표를 경험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판단표와 범주표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서 범주표가 객관의 현상형식임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⁵⁴⁾

그러나 윌커슨의 주장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판단표에서 범주표로의 도출은 주관적 필연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에서 사고의 모든 기능을 발견하여 완전한 판단표를 완성했다는 칸트의 주장이 논리학의 형식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논리학의 형식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존재 내의 논리가 전도되어 논리에 의해서 존재가 현상된다는 점을 칸트가 판단표에서 범주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냈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주체적인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53) Wilkerson, T. E.,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 Commentary for Students*, Clarendon Press, Oxford, 1976, 47쪽 참조.

54) 하이데거는 범주가 판단표에서 파생되지 않을뿐더러, 도저히 판단표로부터 연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순수 오성의 본질과 순수 직관과의 연관성에 따라 주목했을 때, 범주가 비로소 존재론적 술어임이 밝혀진다. 따라서 판단표는 범주들의 근원이 아니라 단지 '모든 순수오성개념들을 발견하는 실마리'일 뿐이다. 하이데거,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6, 126~127쪽 참조.

범주표에 따르지 않고서는 달리 인식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범주표 자체가 존재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주표는 현상 방식을 나타내는 색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칸트는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다루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개념의 분석론에서는 각각의 범주의 정의와 그 사용을 전개하지 않고 전체 범주가 인식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⁵⁵⁾ 그의 주장에 의거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범주가 아니라 범주의 전체 체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범주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항마다 범주가 동일하게 셋씩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각 항의 셋째 범주가 첫째와 둘째 범주의 선험적 종합을 통해서 나온다는 점에서 칸트가 이분법을 극복하고 선험적 종합이 가능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⁵⁶⁾ 그러므로 “양의 범주에서 모두(전체성)는 하나(단일성)로 간주된 여럿(수다성)이고, 질의 범주에서 제한성은 부정성(~아님)과 결합된 실제성(~임)이며, 관계의 범주에서 상호성은 타자를 서로 규정하는 실체의 인과성이고, 끝으로 양상의 범주에서 필연성은 가능성 자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실존이다.”⁵⁷⁾ 이때 각 항에서 범주의 결합이 첫째 범주와 둘째 범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새로운 범주의 산출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범주들의 결합으로 생긴 새로운 범주가 결합되기 전에 있던 범주들의 특징만을 가진다면 굳이 범주의 결합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범주들의 기능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주의 체계에도 불구하고 앞선 질(3절)에서 가졌던 범주의 완전성에 대한 물음에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사고의 기능과 범주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능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능이 서로 다른 표상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 아래서 정돈하는 통일 활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고가 기능한다는 것은 사고가 통일이라는 지향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사고의 통일은 개념들의 포섭관계를 통한 최고류(最高類)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

55) 『순수이성비판』에서 ‘선험적 분석론’은 ‘개념의 분석론’과 ‘원칙의 분석론’으로 이루어졌는데, 개념의 분석론 이후에 전개되는 원칙의 분석론에서 오성의 원칙에 따른 범주의 사용을 언급하지만, 판단표와 범주표가 어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설명하는 범주의 정의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각의 범주들의 정의는 판단표와 범주의 사용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56) B 110 참조.

57) B 111.

에 각각의 범주는 사고의 논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최고류라고 말할 수 있다.⁵⁸⁾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범주들은 상호간에 배타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범주간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모든 최고류를 칸트가 생각해냈는가 의 문제에서는 회의적이다. 결국 칸트는 범주가 논리적 속성을 가진 유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논리학의 완전한 체계에 의존하여 대상이 놓여 있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⁵⁹⁾

또한 존재자를 개념화함으로써 유개념이라는 외연에 포함시키는 것을 판단의 통일이라고 본 점에서 존재자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나 존재자의 개별성은 배제했다고 볼 수 있다. 존재자의 보편화 과정이 유개념으로 묶는 과정이고, 존재자의 개별화 과정이 종개념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판단은 내포의 과정이 아니라 외연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판단은 통일을 위해서 추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통적인 것은 통일시키고 차이점들은 배제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 인식을 개별적인 인식이 아닌 보편적인 인식으로 환원하려는 칸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58) 칸트는 순수이성개념을 이념이라고 하여 순수오성개념인 범주와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념이 범주로 통일된다는 점에서 범주가 개념에 대하여 이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59) 후설은 범주표를 판단표에서 도출한 것에 대해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는 존재론적 선천성(a priori)을 형식 논리학적 판단표라는 프로크루스테스(Prokrustes)의 침대에 묶으려는 의도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케른, 『후설과 칸트』, 배의용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1, 199쪽 참조. 존재가 논리적으로 놓여 있다는 것은 현상적 존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인 사물 그 자체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주장은 존재의 현상이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인간 중심적 사유의 전형을 이룬다. 따라서 판단에서 범주를 도출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존재에서 자유를 제거하여 현상을 서술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범주의 적용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

1. 범주의 선험적 연역의 필요성

칸트는 범주의 실마리가 사고의 기능들에 있음을 밝혀낸 뒤에, 범주가 객관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증명을 범주의 ‘선험적 연역’(transzendente Deduktion)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선험적 연역 전반에 걸쳐 있는 원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칸트가 말하는 연역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고, 왜 경험적 연역이 아닌 선험적 연역인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논자는 선험적 연역의 범위를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재판(1787년)의 내용에 국한하여 논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의 머리말에서도 밝히듯이, 칸트 자신이 초판에 있어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이 불만족스러워 재판에서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재판은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서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역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연역(演繹: Deduktion)은 권한 또는 권리의 요구를 밝히기 위한 증명이다. 보통 연역이라는 말은 법학자들이 ‘사실 관련 문제’(quid facti)와 구별하기 위해서 ‘권리적인 문제’(quid juris)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논리학의 추리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추리의 방식은 크게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로 나눈다. 귀납적 추리는 개개의 특수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 사실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추리임에 반하여, 연역적 추리는 일반적 원리로부터 개개의 특수한 사실에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 추리이다.”⁶⁰⁾

논리학적 연역의 의미를 통해서 칸트가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서 전개한 내용을 추측해 보면, 우리는 현상의 보편적인 개념인 범주가 경험적 개념들에 적용된다는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이 보편

60) 임병수, 『논리학』, 형설출판사, 1996, 108쪽.

적인 범주의 의미 혹은 범주의 보편성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연역의 법률적 의미를 통해서 범주의 사용은 권리의 문제이지 사실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범주의 사용은 공간과 시간이 직관의 형식이어서 감성의 모든 표상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놓이지 않으면 현상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범주를 사용해야만 개념이 선천적으로 규정된다는 권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연역은 인간이 범주를 가지고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만약 범주에 대하여 연역하지 않고 범주의 사용을 개연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인식이 안전한가를 확인하지 않고 지식이라는 건축물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에서 범주의 연역은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연역에는 경험적 연역과 선험적 연역이 있는데, 범주가 경험에 대하여 어떤 속성을 가진 개념인가에 따라 연역의 방식이 결정된다. 경험과 관련되어 감성의 직관을 내용으로 갖는 것은 경험적인 개념이고 경험과 독립적으로 사유되는 것은 선험적인 개념이다. 이들 개념들의 연역은 각각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경험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경험에 의해 항상 직접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경험적 연역만으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반면에 순수한 개념들은 경험이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경험적 연역으로는 순수한 개념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칸트는 순수한 개념인 범주에 대해서 선험적 연역으로 권리의 정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⁶¹⁾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개념에는 직관의 형식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고의 형식인 범주가 있는데, 왜 하필 범주에만 선험적 연역이 필요한가라고 물을 수 있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감성론’(transzendente Ästhetik)에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연역이 아니라 해설을 행한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의 해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61) 칸트는 순수한 개념이 선천적으로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선험적 연역’이라 불렀다. 즉, 개념의 객관적 타당성과 실재성을 경험에서가 아니라 이성의 입법적 근거에서 정당화한다는 뜻이다. 이 정당화 과정에서 칸트가 부딪힌 어려움은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과 실재성의 증명이 논리적인 가능성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상과의 필연적 관계가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데 있었다. 강영안, 「칸트의 초월철학과 형이상학」,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44쪽 참조.

“해설이라는 말을 나는 어떤 개념에 속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상이라 이해하는바, 그 해설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을 서술하는 것을 포함하면, 그 해설은 형이상학적 해설이다.” (B 38)

“선험적 해설이라는 말을 나는 한 개념을 그로부터 다른 선천적 종합 인식의 가능성이 통찰될 수 있는 원리로 설명함이라고 이해한다. 이 의도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1) 실제로 그러한 인식들이 주어진 개념으로부터 유출된다는 사실과, 2) 이 인식들은 오로지 이 개념의 주어진 설명방식을 전제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B 40)

칸트는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만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는 대상이 어떻게 현상되는가라는 사실의 문제를 설명하는 해설이 필요할 뿐이다.⁶²⁾ 이것을 형이상학적 해설과 선험적 해설에 적용하면, 공간과 시간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개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해설인 것이고, 공간과 시간을 전제해서만 선천적 종합 인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선험적 해설인 것이다. 이와 달리 범주는 이미 공간과 시간 만으로도 현상 가능한 표상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권리의 문제와 관계한다. 그러므로 범주가 사고의 논리적 기능과 일치해야만 됨을 증명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연역이고, 범주를 전제해서만 선천적 종합 인식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선험적 연역이다.

그런데 선험적 연역은 인식을 전제하고서 범주를 통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해서 인식이 시작되는 감각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식이 완결되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범주가 위치한 주관에서 선험적 연역이 출발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칸트가 주관과 객관에 대하여 각각 ‘나[동일성]와 ‘나 아닌 다른 것[차이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데카르트가 모든 지식의 원천인 자명성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사실을 바탕으로 주

62) 들뢰즈에 따르면, ‘어떠한 사실이 왜 그러한가?’라는 문제는 형이상학의 주제이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이 선천적 직관이라는 것은 칸트가 공간과 시간의 ‘형이상학적 해설’이라 부른 절에서 다루는 주제이다. 반면에 오성이 범주를 사용한다는 것과 범주가 판단 형식으로부터 연역된다는 것은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이라 부른 절에서 다루는 주제이다. 들뢰즈, 『칸트의 비판철학』, 서동욱 옮김, 민음사, 2006, 34쪽 참조.

관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주관의 동일성을 기초로 해서 주관과 관계하는 객관의 표상들이 동일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칸트의 인식론은 다소 주관주의적이지만 주관의 표상을 통한 주관적 인식의 보편성을 주장한다.⁶³⁾ 그러므로 연역의 순서도 주관의 보편적 오성 개념으로부터 객관의 개별적 감성 직관으로 내려간다.

이처럼 주관에서 객관으로 내려간 경험 과정을 연역에 도입한 것은 칸트가 경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피력(披瀝)하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칸트는 인식의 완결을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경험을 일련의 인식 과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경험은 비록 지각에서 시작하지만 완전한 인식이 아니고 지각의 내용이 담긴 개념을 산출할 때에 하나의 완전한 인식이 된다.

또한 개념은 범주의 사용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점에서 범주를 사용한다는 것이 인식함을 의미한다. 이때 범주는 질료가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에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범주의 선형적 연역에서 살펴야 하는 것은 현상과 범주의 근원적인 관계 맺음이다. 왜냐하면 현상과 범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관의 개념과 객관의 대상이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실체의 범주는 판단에 있어서 주어가 되는 경험적 직관(물체에 속하는 하위 개념들)을 선천적으로 종합함(물체로 포함함)으로써 주어 개념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범주에 의해서 ‘논리적 종합’⁶⁴⁾이 가능하고 판단에서 개념들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칸트

63) 인식 주관이 인식 객관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칸트 이전 철학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양자를 매개하는 동일적 근원에 대하여 플라톤은 바로 선(善)의 이데아라고 말하고, 중세 스콜라철학자들은 신(神)이라고 주장한다. 근대의 데카르트는 주관의 자명한 진리(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인식이 출발하지만 나의 사유성과 세계의 연장성을 넘어서면서 그 둘을 매개할만한 절대적 실재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론자들이 세계에 대한 이성적 앎, 수학적 앎의 절대성과 보편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본유관념은 스콜라철학에서 논의된 신의 세계 창조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에 경험론자들은 이러한 본유관념을 부정하여 날 때부터 타고난 관념이나 앎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출생했을 때의 영혼 상태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로 보고 세계와의 접촉과 경험을 통해 비로소 영혼이 모든 관념이나 인식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은 귀납추리에 의한 개연적 확실성만을 가지므로 절대적 확실성을 줄 수는 없다. 이처럼 칸트 이전에 철학자들이 인간에 의한 인식 가능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칸트는 인식주체 자신이 고유한 인식의 틀인 범주를 지닌다는 주장을 편다. 이러한 칸트의 견해는 주관의 인식형식이 곧 인식된 대상 세계의 존재형식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칸트에 있어서 인식주체와 객체 간의 공통적인 매개는 신도 세계도 아닌 인간 자신이 된다. 한자경, 『칸트 철학에의 초대』, 서광사, 2007, 34~42쪽 참조.

64) 논리적 종합은 유개념(물체)에 종개념(물체에 포함되는 여러 표상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

는 오성의 범주를 적용하는 것이 개념을 결합하는 것임을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서 밝힌다. 범주에 대한 연역은 칸트 이전에 로크와 흄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나 로크와 흄은 범주의 경험적 연역을 시도한다. 로크는 범주를 경험에서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식인 선험적 인식을 얻으려 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한다. 칸트는 이러한 로크의 입장을 독단론으로 규정한다. 또한 흄은 범주의 선험적 근원을 인정했지만 범주를 오성에서 도출하지 않고 경험에서 도출했기 때문에 오성이 자신 안에 결합해 있지 않은 개념들을 대상 안에 필연적으로 결합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칸트는 이와 같이 오성의 자발성을 밝히지 못하고 오성이 경험의 창출자임을 착상하지 못한 흄의 입장을 회의론으로 규정한다.

칸트에 의하면, 범주의 선험적 연역은 독단론과 회의론이라는 잘못된 이성 사용을 피하고 올바른 이성 사용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성 사용의 올바른 길은 독단론과 회의론이 경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로크의 독단론이 경험을 맹신했다면 흄의 회의론은 경험을 불신했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경험을 단지 현상의 객관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았을 뿐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주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오성 자체 내에서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찾는다는 점에서 독단론과 회의론이라는 절벽을 피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은 경험이 아니라 오성 자체 내에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주관의 오성에서 감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먼저 오성의 선험적 통각과 범주의 관계를 살피고 다음에 감성의 생산적 구상력과 범주의 관계를 살피야 할 것이다.

로 논리적 종합은 선천적으로 개념을 종합함을 의미한다. 개념의 종합으로 대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범주가 대상을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이때 '범주가 대상을 가능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스피노자처럼 '개념의 질서'(ordo idearum)가 '대상의 질서'(ordo rerum)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모순적인 사고 가능성으로부터 존재자의 실제 가능성으로 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사물이 주어지는 조건(공간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사물의 경험에 앞서 사물 일반(개념)에 관해 무엇(사물의 실질적인 가능성)인가를 미리 이해(선천적 종합)할 수 있다. 박진, 「칸트에 전해진 중세 스콜라철학의 유산」,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학현실사, 1999, 58쪽 참조.

2. 순수한 통각의 통일

인식은 표상들의 종합과 통일의 과정에 의해서 가능한데, 종합과 통일은 모두 결합(Verbindung)⁶⁵⁾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먼저 결합 개념부터 살피고자 한다. 인식이 표상과 객관의 일치 또는 결합이라고 했을 때 감성은 수용(受容)적인 표상력(表象力: Vorstellungskraft)일 뿐이어서 자발적인 결합을 이루어낼 수는 없고 오성의 작용에 의해서 결합이 가능하다.⁶⁶⁾ 그러므로 먼저 주관의 오성이 직관의 표상들을 결합하지 않고서는 객관에 대한 표상들로 사고할 수 없다.⁶⁷⁾ 또한 이러한 결합은 직관 일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객관 자체 내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관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주관의 자기 활동이다. 다시 말해서 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적이고 유일한 방식은 주관의 자발적 활동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결합과 반대인 것으로 보이는 분해나 분석도 항상 이러한 결합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칸트는 오성이 개념들을 통일해서 결합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근거에 있는 의

65) 칸트에 있어서 모든 결합은 합성이거나 연결이다. 합성은 동종적인 것의 종합이어서 언제든지 우연히 결합할 수 있다. 또한 합성은 수학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것으로 집합과 합동으로 구분되는데, 집합은 연장적 크기에 관계하고 합동은 밀도적 크기에 관계한다. 반면에 연결은 동종적이지 않은 것의 종합이어서 상호 필연적인 결합이다. 또한 연결은 역학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표상들의 현존적 결합과 관계하는데, 현상들 상호간의 물리학적(질료적) 결합과 선천적 인식 능력 안에서 현상들의 형이상학적(형식적) 결합으로 구분된다. B 201~202 참조.

66) 감성의 표상력은 공간과 시간상에서 대상에 관한 감각 내용들을 표시하는 것이고, 오성의 표상력은 대상에 관해서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감성과 오성의 표상력이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하여, 구상력의 표상력은 이들을 매개한다. 감성과 오성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감성에서는 시간이고 오성에서는 통각이다. 인식은 주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각 내에 시간이 종속한다. 구상력은 시간에 따라 감성의 표상들을 종합하고 범주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식(圖式: Schema)을 산출한다. 범주와 직관은 이중적이어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성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적인 도식이 범주와 결합하여 개념을 산출하는 것이다. B 177 참조.

67) 칸트는 다양한 표상들의 결합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 의해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소개한다. 직관의 표상들은 다수의 조각 요소들로 구성되고 직관의 표상들 자체에 자발적인 질서라든가 배열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직관의 표상 조각들을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질서 짓거나 배열하거나 또는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결합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식한 후에 어떤 배열도 가지지 않는 표상 조각들에 대하여 오성의 결합작용이 배열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미 인식되기 전에 객관이 가지고 있던 배열을 오성의 결합을 통해서 본래 배열로 맞추는 경우이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 객관적 배열대로 맞춘다는 것은 사물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칸트의 인식에 있어서 배제된다. 한편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오성에 의해서 결합되지 않고도 존재하는 표상 조각들은 주관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사물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edited by C. Lew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134~135쪽 참조.

식을 통각(統覺: Apperzeption)⁶⁸⁾이라고 한다. 통각은 ‘나는 사고한다’라는 자기의 식으로 우리의 모든 표상에 수반된다. 왜냐하면 모든 표상들이 통각에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을 생각한다고 믿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다양한 표상들의 통일은 통각이 수행한다. 칸트는 통각과 통각의 통일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그 각각의 이유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그는 ‘나는 사고한다’는 표상을 순수 통각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경험적 통각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또한 칸트는 ‘나는 사고한다’는 표상을 근원적 통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타의 모든 표상들에 수반할 수밖에 없는 동일자(同一者)인 자기의식이 다른 어떤 표상으로부터도 이끌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 통각의 통일을 자기의식의 선형적 통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로부터 선천적 인식의 가능성이 나옴을 표시하기 위함이다.⁶⁹⁾

칸트에 따르면, ‘나는 사고한다’라는 자기의식은 단지 ‘내가 생각한다’는 자각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의해서 촉발된 여러 표상들을 다시 그 대상에 대한 사고로 통일하는 데에도 적용된다.⁷⁰⁾ 왜냐하면 직관에 주어진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이 ‘나(Ich)’라는 하나의 자기의식에 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인식하려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은 나의 표상이 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인식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표상들은 하나의 보편적인 자기의식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사고한다’라는 통각이 수행하는 종합적 통일은 표상들을 통일할 수 있는 선천적 조건이다.

직관에 주어진 다양한 표상들에 대한 통각의 동일성은 표상들의 종합을 의식

68) 데카르트는 ‘Cogito, ergo sum’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사유하는 자아인 코기토를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개념 규정에 따라 사유 실체로 정의하지만, 칸트는 선형적 관념론에 따라 사유하는 동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데카르트의 자아를 오성적 자기의식의 순수 통각과 내적인 지각의 경험적 자아로 구분하면서 순수 통각을 철학의 참된 원리로 간주한다. 김정주, 『데카르트와 칸트의 “Cogito”』,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134쪽 참조.

69) B 132 참조.

70)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나는 생각한다’(Ich denke)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체가 자신임을 나타내는 존재론적 자아(Ich)이지만, 칸트의 통각은 ‘나는 무엇에 관해 생각한다’(Ich denke von Etwas)라는 의미에서 대상과 관련된 인식론적 자아이다. 문성학,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존재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166쪽 참조.

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험적 의식은 서로 다른 여러 표상들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산만하며, 주관의 경험에만 관심을 두고 주관의 동일성과의 관계 맺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관의 동일성과의 관계 맺음은 각각의 표상을 의식하는 것을 통해서 결코 생기지 않고, 한 표상에 다른 표상을 덧붙인 종합된 표상들 내의 각각의 표상에 포함된 주관의 동일성을 확인할 때 생긴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은 동일한 의식 속에 결합될 경우에만 이 표상들에서 ‘의식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⁷¹⁾

칸트는 통각의 통일 방식에 따라 종합적 통일과 분석적 통일로 나누는데, 종합적 통일은 다양한 표상들의 종합 내에 있는 의식들을 하나의 의식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분석적 통일은 의식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오성은 분석하고 종합하는 기능을 하는데 종합의 기능이 분석의 기능보다 선천적이다. 그러므로 통각의 통일에 있어서는 분석적 통일에 앞서 종합적 통일이 전제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은 선형철학이 매여 있어야 하는 최고 지점이자 오성 그 자체이다.⁷²⁾

통각의 종합적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려면 대상에 대한 표상들의 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상들의 모든 결합은 반드시 표상들의 종합 내에 있는 의식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의식이 통일되지 않고서는 하나의 대상으로 표상들이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의 통일은 객관에 대한 표상들을 대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식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범주의 사용은 이미 의식의 통일에 의한 표상들의 결합을 전제한다. 따라서 범주는 통각의 통일이 불가능하면 인식의 형식이 아니라 단순한 논리적 사고의 형식에 머문다.

한편 통각의 적용 위치에 따라 통각의 통일을 분류하면 객관적 통일과 주관적 통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직관에 주어진 다양한 표상들을 개념으로 합일하는 ‘통각의 선형적 통일’로서, 객관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과는

71) 김 진, 『선형철학과 요청주의』, 울산대학교출판부, 1999, 35쪽.

72) 데카르트가 ‘Cogito, ergo sum’이라는 명제를 철학의 제1원리로 불렀던 것처럼 칸트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의 원칙은 모든 오성사용의 최고원리’(B 136)라고 말한다. 김영례, 『칸트 인식론에서의 선형적 주관성』, 한단석 외 공저, 『칸트철학사상연구』, 형설출판사, 1995, 311쪽 참조.

다르게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내감(內感: innerer Sinn)⁷³⁾의 경험적 통일로서, '나'라는 주관을 규정한다. 이러한 통각과 내감의 구분은 범주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내감은 범주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상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표상에 대하여 경험적이다. 그러므로 내감은 상황에 따라서 현상들을 동시에 의식할 수도 있고, 잇따라 의식할 수도 있다.⁷⁴⁾ 칸트는 이와 같이 내감이 다양한 표상들을 의식하는 것을 연상(聯想: Assoziation)이라고 부르는데, 연상은 직관에 나타난 현상에 따르므로 우연적이다.⁷⁵⁾

반면에 통각이 표상들을 선천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객관적 통일이라 불리며 직관의 현상에 범주가 개입되어 선천적으로 직관 일반을 규정한다. 칸트는 자기의 의식을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기의식을 명백히 구분해야 좀 더 명료하게 객관적 통일과 주관적 통일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객관적 통일에 있어서 자기의식은 순수한 통각으로 오성에 적용되고, 주관적 통일에 있어서 자기의식은 경험적 통각(내감)으로 감성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칸트가 볼 때,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은 표상들이 보편적인 자기의식에 의해서 대상과 결합하기 때문에 객관적 타당성을 갖지만, 경험적 통각의 주관적 통일은 표상들이 대상에 의해서 경험적인 자기의식과 결합하기 때문에 주관적 타당성만을 가질 뿐이다.

인식은 믿음이 아니라 앎에 도달하기 위해서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하므로 내감의 주관적 통일이 아니라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과 관련이 있다. 인식이 내감의 주관적 통일과 관련이 없음은 판단 내에서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과

73) 내감은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의식을 의미하는데 내감의 형식은 시간이다.

74) 내감은 시간에 따라 표상들을 받아들인데, 이때 시간은 주관적 표상들을 받아들인 순서이기 때문에 주관의 상황에 따라 표상들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한 잇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내감은 주관적인 의식이다.

75) 연상은 표상에 수반하는 경험적 법칙으로 대상에 대한 여러 감각표상들을 수용한 이후에 대상의 현존 없이도 수용된 표상들을 마음에 놓아두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각각의 표상들을 연합한다. 이때 연상은 표상들을 받아들인 순서에 따라 연결하려는 현상에 대한 친화성(親和性: Affinität)을 가진다. Eisler, R., *Kant Lexikon*,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 New York, 1977, 44쪽 참조. 하나의 대상에 대한 표상은 현저하게 구별되는 다수의 표상 조각들로 구성된다. 이때 다수의 표상 조각들은 어떤 감각계(예를 들어 시각)의 조각 표상은 시간적인 순서로 인접해 있는 다른 감각계(예를 들어 청각) 속에 어떤 현저한 조각 표상과 특별히 결합되어 있다. 시간이 이러한 특별한 결합의 연결끈 역할을 하며 흔적을 남기고 유사점을 다시 환기하고, 형상 속에서 회복시키는 등 주관의 심적 역사 안에 인접한 표상들을 묶는다. 그러므로 시간의 친화성에 따른 합성이 연상인 것이다.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edited by C. Lew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119~121쪽 참조.

내감의 주관적 통일을 구분할 때 명백해지는데, 인식을 표현하는 판단에서 관계사(關係辭: das Verhältniswörtchen)인 ‘이다’가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예컨대 “‘물체들은 무겁다’(die Körper sind schwer)라는 판단에 있어서 관계사인 ‘sind’는 표상들이 근원적 통각과 관계 맺음을 표시한다.”⁷⁶⁾ ‘물체’나 ‘무거움’이란 표상들은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해 산출된 개념들로 관계사를 통해서 서로 객관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물체들은 무겁다’는 판단에 있어, 관계사는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 의해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직관들(내가 든 물체, 내가 느낀 무거움)이 범주에 의해서 객관적 개념들(물체, 무거움)로 규정됨을 표시한다.

관계사의 역할은 내감의 주관적 통일에서 표상을 의식하는 연상을 예로 들 때 명백해진다. ‘연상의 법칙’⁷⁷⁾에 따르면, ‘내가 한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무게의 압박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각각의 판단에서 공통적인 주관을 배제하고 나서 객관들을 연결하여 ‘그 물체는 무겁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연상의 법칙은 경험적인 자기의식(내감)과 표상들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주관적인 결합이므로 관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감의 주관적 통일에서 ‘물체’와 ‘무게’라는 객관의 두 표상들은 주관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관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관적 대상이 될 뿐 객관들 사이의 규정을 나타내는 객관적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감의 주관적 통일의 경우에는 아무리 빈번하게 지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반복될 때마다 내감에 직접 매여 있을 뿐이고, 각각의 표상들이 내감을 제거한 객관적 표상들로 함께 묶일 수 없음을 나타낸다.⁷⁸⁾ 그러므로 내감의 주관적 통일은 객관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직 범주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직관의 현상에만 관계한다.

76) B 142.

77) 연상의 법칙은 나의 경험에 의해서 대상의 표상들을 연결한다. 이러한 연상의 법칙은 나의 주관적 경험 순서에 의해서 연상의 재료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다시 말해서 연상의 법칙은 객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관련될 뿐이다.

78) ‘시간은 다름 아닌 내감의 형식, 다시 말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직관의 형식일 뿐’(A 33 / B 49)이라고 했을 때, 경험은 적어도 실제로 지각적 계기인 주관적 시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으로 의식할 때 확실히 우리의 경험은 시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감의 반성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시간 순서를 갖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재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edited by C. Lew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235쪽 참조.

반면에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서는 관계사가 종합된 표상들을 규정되는 것과 규정하는 것으로 구분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연상의 법칙이 항상 나의 경험을 재생할 뿐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대조적이다. 즉 내감의 주관적 통일에서는 ‘나는 물체를 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무게를 느낀다’라는 두 명제를 하나의 명제인 것처럼 만드는 접속사 ‘그리고’를 사용한다. 칸트가 보기에 ‘그리고’는 먼것부터 경험의 주관이나 중의 경험에도 계속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시간 순서의 연결어일 뿐이다. 그러나 순수한 통각의 객관적 통일에서는 두 명제를 하나의 명제로 결합할 때, 각각의 경험에서 객관이었던 부분들만 추출하여 규정하는 부분[술어]과 규정되는 부분[주어]으로 나누고 관계사로 연결한다. 이처럼 관계사에 의한 판단은 객관을 가지고 또 다른 객관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순수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통해서도 표상들의 결합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알 수 있고, 객관적 통일을 통해서도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순수한 통각의 작용에 범주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범주의 사용은 통각의 통일을 전제함을 알 수 있고 통각의 통일이 불가능한 경우 범주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범주가 객관의 대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이 되고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를 알아보자.

3. 범주 사용의 한계

앞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위해서 범주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통각의 종합적 통일의 대상이 바로 범주가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통각의 통일의 대상에 범주가 적용된다는 것은 범주에 종속하여 표상들이 통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든 감성적 직관들은 직관의 다양한 표상들이 하나의 의식 안에 모일 수 있는 조건인 범주들에 종속한다.”⁷⁹⁾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주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표상들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범주들이 통각의 통일을

79) B 143.

위한 형식임을 의미한다. 칸트에 따르면, 범주는 다양한 표상들의 종합에 선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통각이 종합된 표상들을 통일하는 데에도 적용되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그는 왜 오성이 범주를 사용하여 통각의 통일을 이루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다. 칸트는 오성이 대상에 대하여 12범주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오직 범주들을 매개로 해서, 그리고 이런 종류의 범주들과 이런 수효의 범주들을 통해서 통각의 통일을 선형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오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그러한가의 연유를 더 이상 댈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왜 하필 다른 게 아니고 꼭 이와 같은 판단 기능을 가졌는지, 또 왜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가능한 직관의 유일한 형식인지 그 연유를 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B 145~146)

칸트의 이런 변명은 공간과 시간이 감성에 주어진 것처럼 범주도 오성에 주어졌다는 형이상학적 사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명확히 말하자면 권리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경험에 대하여 이전 철학자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로크는 칸트가 자발적 오성 사용을 주장하기 이전에 대상이 표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연상의 법칙을 주장한다.⁸⁰⁾ 이러한 연상의 법칙은 주관이 스스로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고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경험적 표상에 의한 사물의 인식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러한 인식 방식이 주관의 규정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식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통해 오성의 자발성을 드러낸다.⁸¹⁾ 즉 그는 표상이 대

80) 로크는 경험에 의해서 개념이 산출된다는 입장에 서서 연상의 법칙을 주장한다. 로크에게서 ‘실재하는 사물’이란 관념 속의 내적 대상이 아니라 감각할 수 있는 ‘외적 대상’(external object)을 지칭한다. 이러한 외적 대상에 대한 인식은, 외적 대상이 우리 마음에 관념(ideas)을 불러일으키고, 이 관념의 중개를 통하여 외적으로 실재하는 사물을 재확인했을 때 생긴다. 그러므로 로크는 외적 사물에 의해 마음에 표상이 생기기 전에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마음에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성격이나 관념도 없는 백지(tabula rasa)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백종현, 『로크와 칸트에서 ‘실재하는 사물’』,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213~214쪽 참조.

81) 칸트의 소위 코페르니쿠스(Copernicus)적 혁명은 중세 철학에서 신에 대한 ‘선형 개념’을 인간에게 내면화 혹은 주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고대와 중세 때에 유기적인 것으로 믿어졌던 우주가 칸트 철학에 와서 유기적인 이성으로 대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가 가진 이성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봉호, 『칸트의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19쪽 참조.

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연역을 통해서 범주 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남아 있는 문제는 인간이 왜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인식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고함에도 왜 이와 같은 인식의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선천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 준다. 이처럼 범주의 연역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왜 인식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성이 왜 이와 같은 범주를 사용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듯이 범주의 사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칸트에 의하면, 범주는 오성에서 경험적 대상을 '사고'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칸트가 사고와 인식을 구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두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대상이 주어지는 직관이고, 둘째는 대상이 사고되는 개념이다.

감성과 더불어 오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직관과 개념이 어떤 공통된 관계를 맺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통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상 일반이 필요한데, 대상 일반은 대상에 관한 직관의 표상들 전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비록 직관은 대상에 관한 표상들을 가지지만 그들의 종합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상 일반에 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오성의 범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범주는 대상 일반을 규정하여 대상이 어떻게 현상하는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⁸²⁾

이와 같이 범주가 직관의 표상들의 종합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범주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표상들의 종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표상들의 종합이 있을 때 범주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표상들의 종합이 없다면 범주를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우리가 범주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하여 인식과 사고의 측

82) 범주는 인식에서 대상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표상이기는 하지만, 대상들을 구별 가능하게 하는 질료가 주어질 때에만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칸트에 있어서 존재자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물 인식은 바로 존재자의 무엇임과 어떻게 있음을 개념적으로 파악함이다. 인식은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형식]인 범주에 관한 칸트의 이론은 현상의 실질 내용[질료]이 현존하는 어떤 것에 귀속되어야 할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칸트의 범주는 현상으로 드러난 존재자 일반의 보편적 본질에 관한 이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범주는 존재론적 개념이다. 백종현, 「칸트: 현상의 존재론」,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128쪽 참조.

면에서 고려하면, 직관이 없이 사고 가능하기만 한 것에는 범주를 사용할 수 없고 감성적 직관과 사고를 포함하는 인식 가능한 것에만 범주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주 적용의 한계를 구분하는 것은 인식과 사고를 구분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범주 적용의 한계는 주관의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주의 적용은 주관적 측면에서 경험적 인식에 한정되듯이 객관적 측면에서 범주와 결합을 맺는 직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직관에는 순수한 직관과 경험적 직관이 있다. 순수한 직관은 공간과 시간이고, 경험적 직관은 공간과 시간상에 직접 표상되는 것이다.⁸³⁾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범주는 순수한 직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순수한 직관은 감성적 직관의 형식으로 경험[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선천적 형식[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범주의 사용이 사고에 머무는 ‘직관의 형식’이 아니라 인식에 이를 수 있는 ‘형식적 직관’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⁸⁴⁾ 그러므로 “범주가 단지 경험적 인식의 가능성을 위해서만 쓰인다고 할 때 ‘경험적 인식’(empirische Erkenntnis)은 ‘경험(Erfahrung)’이다. 이런 점에서 범주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가능한 경험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물을 인식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도 갖지 않는다.”⁸⁵⁾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과 관련해서만 범주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범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는 조건들이고 단지 경험의 대상들에게만 타당하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경험 가능한 것은 없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이 감성에만 있는 것이고,

83)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체의 개념 속에서 세 가지 상이한 요소를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오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요소(예컨대 실체, 힘, 항구성 등), 두 번째로 감각에 의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요소(예컨대 색깔, 굳기, 온도 등), 세 번째로 물체의 연장과 같은 요소로 구별된다. 이들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는 오성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파악된 물체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범주의 적용에 의한다. 반면에 물체의 개념에 속하는 나머지 두 요소는 감성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데, 감각에 의해 드러나는 물체의 성질은 경험적 직관에 해당되고, 이러한 물체의 성질을 표현하는 주관의 형식은 순수한 직관에 해당된다.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edited by C. Lew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19~20쪽 참조.

84) ‘직관의 형식’(die form der Anschauung)은 감성의 표상들을 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인데, 이러한 직관의 형식은 감성의 객관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을 수용하는 조건이다. 반면에 ‘형식적 직관’(die formale Anschauung)은 표상의 통일을 제공하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직관 자체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공간과 시간은 직관의 형식이자 직관 자체이다. 다시 말해서 직관의 형식은 감성의 표상들에 대한 조건이고, 형식적 직관은 감성의 표상들의 종합을 포함하고 있는 직관 일반이라고 볼 수 있다. B 160 각주 참조.

85) B 147~148.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현상적 실재성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직관의 조건이 공간과 시간이듯이 직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주도 감성적 직관 너머까지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주가 적용되는 직관 일반은 감성적 직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범주가 직관의 형식에 구속되지 않지만, 범주의 적용을 받는 직관 일반이 이미 직관의 형식에 의해 제약을 받은 다양한 표상들의 종합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직관의 형식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범주가 선천적으로 직관의 형식에 따르기 때문에, 범주를 감성적 직관 너머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사유 속에는 객관적 실재성이 없는 순전한 사유형식만 남게 되고, 통각의 종합적 통일도 범주가 적용될 직관을 가지지 않게 되어 인식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⁸⁶⁾ 그러므로 범주의 적용은 감성의 경험적 직관에 한정되어야만 한다.

범주가 선천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주의 역할은 선형적이다. 또한 범주가 오성의 결합 기능인 종합과 통일에 모두 관여한다는 점에서 오성적이다. 선형적이고 오성적인 범주는 직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논리적 형식에 불과하므로 객관으로부터 얻은 직관에 적용될 때에만 객관적 실재성을 얻는다. 이러한 점에서 범주의 객관적 실재성은 범주를 통해서만 객관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의 통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표상들의 통일에 의해서 규정되는 대상들이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현상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공간과 시간에 표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천적 직관의 능력인 감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주는 현상과 관련하여 적용 한계를 가지는데, 오직 감성의 공간과 시간에 드러난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범주가 현상에 적용될 때에만 경험이 가능하고 객관의 현상이 객관적임, 즉 현상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주가 현상에 적용될 때 범주 사용의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면 범주가 표상들의 종합과 관련하여 어떻게 객관적 실재성을 가지는지 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86) 강영안에 따르면, 범주는 논리적 사유의 형식이기 때문에, 비록 경험적 기반을 떠나서는 범주가 '경험적 대상과의 관계'를 상실하지만 여전히 '논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험적 직관을 넘어서 범주를 사용할 경우 논리적 의미에서 범주의 선형성은 그대로 존재하되, 인식적 의미에서 범주의 선형성은 제약을 받게 된다. 강영안, 『칸트의 초월철학과 형이상학』,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47쪽 참조.

4. 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

범주의 객관적 실제성은 대상과 관련해서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상들의 종합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과 범주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고찰을 통해서 종합 기능을 수행하는 숨겨진 인식능력인 구상력과 만나게 된다. 구상력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구상력이 감성에 속하지만, 전적으로 감성의 수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성격을 일부 분 갖기 때문에 표상들을 종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칸트는 종합을 ‘형상적 종합’(形象的 綜合: *synthesis speciosa*)과 ‘오성적 종합’(*synthesis intellectualis*)으로 나눈다. 형상적 종합은 감성에 속하는 생산적 구상력이 감성의 직관에 주어진 다양한 표상들을 선천적으로 종합하는 것이고, 오성적 종합은 오성이 직관 일반이라는 개념을 범주에 따라서 종합하는 것이다. 칸트는 형상적 종합과 오성적 종합 둘 다 선형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합들이 다양한 표상들의 종합에 선천적으로 선행하고, 선천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형상적 종합은 통각의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통일과 관련된 ‘오성적 결합’(intellektuellen Verbindung)과 구별해서 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생산적 구상력은 다양한 표상들을 자발적으로 종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생산적 구상력이 범주에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범주는 생산적 구상력이 표상들을 어떻게 종합할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물론 오성적 종합도 범주에 의해 통각의 통일과 관련되어 있으나, 형상적 종합처럼 직관에 속하는 개개의 다양한 표상들을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화된 직관 일반을 종합한다는 점에서 형상적 종합과 다른 것이다.⁸⁷⁾

구상력이 어떻게 인식의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정초하는가의 문제는 구상력의

87) 하이데거는, 칸트가 종합작용을 오성의 기능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구상력이 다양한 표상들을 선형적으로 종합하는 것을 형상적 종합이라고 하여 오성적 종합과 구분하여 소개할 때, 생산적 구상력이 수행하는 종합에 대한 독자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오성은 생산적 구상력 안에서 감성과 관련을 맺는데, 형상적 종합(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과 오성적 종합을 구분하게 되면 생산적 구상력의 감성적 성격이 약화되어 결국 형상적 종합이 오성적 종합에 포함되어서 양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6, 240~241쪽 참조.

산물에서 밝혀진다. 구상력은 범주에 따라 직관의 표상들을 개념화하는 종합을 수행하여 도식(圖式: Schema)⁸⁸⁾을 산출하는데, 도식은 이중적인 감성의 직관과 오성의 개념을 선형적으로 종합할 수 있도록 감성(직관)이 오성(개념)화된 것이다. 그리고 생산적 구상력이 범주에 따라 직관에 주어진 표상들을 종합하여 직관 일반을 생성하기 때문에, 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은 오성을 직관의 대상에 최초로 적용한 것이 된다.

우리는 생산적 구상력이 감성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형적 종합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상력이 어떤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종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물을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칸트는 구상력 자체에 감성의 수용(受容)적인 면과 오성의 자발적인 면이 있다고 대답한다. 칸트에 의하면, 구상력은 수용성을 지닌 재생적 구상력과 자발성을 지닌 생산적 구상력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은 자발적인 기능이므로 두 가지 구상력 중에서 형상적 종합을 수행하는 것은 생산적 구상력이다. 반면에 재생적 구상력의 종합은 경험적 법칙들, 곧 연상의 법칙들에 종속하는 것으로, 선천적 인식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 때문에 칸트는 재생적 구상력의 종합이 선형철학이 아니라 심리학⁸⁹⁾에 속한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형철학이 선천적 법칙인 범주를 다루는데 비해, 심리학은 경험적 법칙인 연상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선형철학과 심리학을 구분하는 징표로서 재생적 구상력과 생산적 구상력의 분리 외에도 통각과 내감의 구분 여부를 들 수 있다. 칸트는 로크가 오성에 관해서 연구한 것을 경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심리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자신이 오성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서 선형철학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심리학과 선형철학의 구분은 로크가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내감과 칸트가 선형철학에서 표현

88) 구상력의 산물인 도식은 감성과 오성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 감성의 도식은 표상들을 종합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고 선천적인 구상력의 산물이다. 이 도식에 의해서 그리고 이 도식에 따라서 생산적 구상력의 경험적 능력의 산물인 형상(形像: Bild)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도식은 다양한 표상들에 대한 종합의 지표로 이를테면 약자(略字: Monogramm)이다. 따라서 형상은 감성의 도식을 매개로 해서만 개념과 결합한다. 반면에 오성의 도식은 개념 일반의 순수 종합이다. 이 도식은 범주에 따라서 종합하기 때문에 구상력의 선형적 산물이다. '구상력의 선형적 산물'[오성의 도식]이 '경험적 산물'[형상]보다 논리적으로 앞서 존재하는 '약자'[감성의 도식]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상력의 선형적 산물'인 오성의 도식이 '순수하고 선천적인 구상력의 산물'인 감성의 도식에 논리적으로 앞서 있다. B 181 참조.

89) 여기에서 심리학이라는 용어는 칸트 당시에 바움가르텐에 의해서 사용된 용어인데, 당시의 심리학은 영혼의 보편적 술어들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심리학의 대상은 영혼(주체)이다. 영혼은 사고하는 '나'로 내감의 대상이고 신체는 외감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고하는 존재자로서 '나'는 심리학의 대상이 된다. B 400 참조.

하는 통각을 구분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칸트는 심리학적 인식을 주장하는 로크가 인식에 있어서 자발성과 수용성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식의 재료들을 모두 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본다. 이때 로크가 말하는 경험은 대상들에 대한 외적 감각의 관찰과 마음의 내적 작용에 대한 관찰을 모두 포함한다.⁹⁰⁾ 그러므로 오성은 이 두 관찰을 통해서 생각의 대상이 되는 재료들을 얻는다. 로크는 감각을 통하여 외적 대상에 대한 지각 내용, 곧 관념을 마음에 전하는 기능을 감각이라 한다. 또한 외적 감각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관념, 즉 우리 자체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관찰하는 관념(예를 들면 지각·사고·의심·믿음·추리·인식·의지 등)을 마음의 여러 작용들에 대한 반성이라 하고, 이 반성의 기관을 내감이라고 일컫는다.⁹¹⁾ 칸트는 이러한 로크의 내감에서 통각을 분리한다.⁹²⁾ 로크는 내감만으로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칸트는 내감의 수용성과 통각의 자발성에 의해서 대상을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형철학에서 통각과 내감은 범주의 적용에서도 구별된다. 통각은 모든 결합의 원천인 범주를 통해서 직관 일반에 속하는 다양한 표상들에 관여하는 데 반해, 내감은 범주의 적용이 없이 직관의 형식에 따라 다양한 표상들을 재생할 뿐이며, 결합하지는 않는다.

범주가 적용되지 않는 내감에 의해서 나온 표상들에 범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물음의 대답은 지각에도 범주가 적용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대상을 지각하려면 대상의 표상들에 대한 각지(覺知: Apprehension)의 종합이 있어야 한다.⁹³⁾ 각지의 종합이 지각을 가능하게 한다는

90) 칸트는 오성의 선천적 개념을 인정하여 오성의 자발성을 인정함에 비하여 로크는 오성의 선천적 개념을 부정하여 오성의 개념도 경험에 의해서 주어졌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로크에 있어 관념은 경험적인 관념만 있을 뿐 순수한 관념은 없다. 그러므로 로크가 오성의 선천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서 행한 인식의 연구는 개념의 경험적 연역에 지나지 않는다. 한단석,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새로운 이해』,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2003, 131쪽 참조.

91) 백중현, 「로크와 칸트에서 '실재하는 사물」,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216쪽 참조.

92) 칸트는 로크가 내감이 두 가지 상반된 기능(자발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함으로써 내감의 기능을 모호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내감에서 자발성을 지닌 통각을 분리한다. 그러나 칸트에게 구상력은 자발성과 수용성을 가지므로 로크에게 가했던 일관성의 잣대로 비판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구상력이 감성에 속한 것인지, 오성에 속한 것인지, 또는 감성과 오성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지만 감성과 오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식능력인지에 대한 물음을 낳기 때문이다.

93) 직관의 다양한 표상들을 통일하자면, 먼저 다양한 표상들을 훑어보고 결합하는 각지의 종합이 필요하다. A 99 참조. 각지의 작용은 표상들을 공간과 시간상에서 개관하고 총괄하는 것으로 직관에서 이루어진다.

측면에서 대상을 지각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위치와 시간적인 순서에서 대상을 표상하는 것이다. 각지의 종합은 형상적 종합의 대상이 되는 직관적 표상을 성립시키기 위한 종합인데, 형상적 종합처럼 각지의 종합도 통각의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표상들의 종합을 통일하는 사고의 형식인 범주에 따른다. 그러므로 범주는 경험의 가능성의 제약이며, 지각조차도 범주에 따른 종합에 의해서 가능케 되는 것이다.⁹⁴⁾

지각이 범주에 따른다는 것은 지각으로 이루어진 현상도 범주에 따름을 의미한다. 범주에 따라 인식되는 현상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된다. 따라서 칸트에 있어서 “자연은 모든 현상들의 총괄이다.”⁹⁵⁾ 범주는 현상을 규정하는 선천적 법칙이라는 점에서 경험 가능한 자연의 선천적 법칙이다.⁹⁶⁾ 이때 선천적 법칙들은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천적 법칙들이 경험 가능한 현상인 자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들이 선천적 법칙들에 따라 구성된다. 여기에서 자연이 인간의 범주가 지닌 선천적 규칙들을 따라야 존재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칸트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어떻게 자연에 있어 현상들의 법칙들이 오성과 오성의 선천적 형식, 곧 다양한 표상 일반을 결합하는 오성과 오성의 기능에 부합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는, 어떻게 현상들 자신이 선천적인 감성적 직관 형식에 부합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기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현상들이 그 자체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관이 감각기능을 갖는 한에서, 주관과 관계해서만 실존하는 것이듯, 법칙들도 현상들 안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들이 의존하고 있

손승길, 「칸트의 선형적 분석론」, 『인문과학연구』, 동의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94, 282~283쪽 참조.

94) 한단석,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새로운 이해』,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2003, 182쪽 참조.

95) B 163.

96) 칸트는 범주에 내재된 선천적 법칙들에 따라서 자연이 현상된다는 데 전혀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edited by C. Lew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 136쪽 참조. 범주에 따라서 자연이 선천적 법칙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자발적인 오성 사용의 계기를 마련해 주지만, 너무 인간중심적인 나머지 인간을 옹아매는 무례함이 되어 자연에서 자유(우연)를 박탈하고 인과론(인간중심적 결정론)에 따른 자연 법칙만을 현상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견해는 신 중심의 결정론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지만, 범주에 의한 인간중심적 결정론이라고 볼 수 있다.

는 주관의 오성을 갖고 있는 한에서, 그 주관과 관계해서만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 164)

칸트의 언급에 의하면, 자연 법칙은 주관에 의해서만 현상에 실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관의 적극적 오성사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버클리의 ‘독단적 관념론’⁹⁷⁾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상은 오성의 법칙에 의해서 주관에 의해서 실존하지만, 사물의 현상이 아닌 사물 그 자체는 직관의 적용에 의해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성의 법칙이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상은 우리의 감성에 드러나는 객관의 일부일 뿐이고, 사물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현상이 주관에 의해서 실존한다는 것은 주관의 범주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범주가 현상과 관계한다는 것은 현상에 대한 존재 방식을 말해 주는 것일 뿐이고 현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범주가 현상들에게 선천적으로 법칙을 지정한다고 해서 경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수 법칙까지 지정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특수 법칙은 전적으로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수 법칙들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서 특수 법칙을 도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특수 법칙은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는 선천적 법칙에 종속하지만 선천적 법칙에서 직접 파생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범주 자체는 보편 법칙을 가능하게 하지만 특수 법칙의 내용까지 스스로 산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수 법칙을 위해서는 자연의 개별 대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⁹⁸⁾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범주의 연역을 인식 과정의 역순으로 전개한다. 범

97)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버클리의 관념론을 독단적 관념론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형적 관념론과 구분한다. 독단적 관념론은 ‘존재는 지각된 것이다’(esse est percipi)라는 버클리의 주장처럼 지각하는 사물은 실존한다는 주장을 지칭한다. 이것은 생각이나 판단이 사실이나 대상에 일치할 때 진리로 보는 진리 대응설의 입장과 비슷하다. 칸트는 사물의 실존을 인식할 수 있다는 버클리의 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현상 이외에 사물 그 자체를 상정한다.

98)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범주는 선천적 법칙이지 경험을 요구하는 특수한 법칙이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법칙은 어디까지나 감성의 제약 하에서 범주가 적용될 때 산출된다는 점에서, 특수한 법칙에 전혀 범주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감성의 제약 하에서 사유할 때에만 인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특수한 법칙은 직관과 범주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주의 연역이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범주는 우선 인식의 전제가 되는 표상들의 통일과 관련 있다. 따라서 표상들의 통일을 수행하는 통각과 관련하여 범주는 통각의 종합적 통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범주는 선천적으로 대상 일반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범주는 표상들의 종합에 있어서 구상력과 관계를 맺는다. 이때 생산적 구상력의 선형적 종합에 직접 범주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의 규칙으로서 선천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여 구상력이 표상들을 종합하는 것을 돕는다.

범주에 따라서 자연 현상의 범칙들이 드러나고 또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주는 인식의 안경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범주가 인식의 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고의 형식을 취하는가가 올바른 판단의 길을 걷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범주에 의해서만 경험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험적 인식의 유한성은 명백히 드러난다.⁹⁹⁾

99) 범주의 선형적 연역은 특히 생산적 구상력과 범주의 관계를 통해서 오성이 감성화되고 감성이 오성화되어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범주의 선형적 연역은 인간이 경험적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감성에 받아들인 표상 내용만을 인식할 수 있는 현실적 유한자이지만, 모든 학문의 토대인 선천적 종합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를 지닌다는 점에서 가능성적 무한자임을 증명한다. 문성학,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론재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90쪽 참조.

IV. 결 론

우리는 칸트의 범주를 『순수이성비판』의 ‘개념의 분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다. 개념의 분석론은 범주의 형이상학적 연역과 선험적 연역을 다룬다. 형이상학적 연역은 이 논문에서 ‘범주의 원천’이라는 장(Ⅱ장)에서 다루었고, 선험적 연역은 ‘범주의 적용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장(Ⅲ장)에서 다루었다. 우리는 범주의 원천과 관련된 형이상학적 연역에서 판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고의 기능과 범주가 같다는 점에서 판단표가 범주표를 발견하는 실마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범주의 출처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비판할 수 있다. 하나는 판단과 범주의 관계에서 과연 판단이 범주를 발견하는 실마리인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칸트가 판단의 형식을 모두 열거했는가라는 점이다. 또한 범주의 적용 범위와 그 객관적 타당성에 관련해서 범주가 감성적 직관에만 적용 가능함을 밝혔고, 범주를 통해서만 객관이 규정된다는 점에서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범주가 왜 경험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다음으로 범주의 적용은 통각의 통일에만 적용되지 않고 왜 구상력의 종합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칸트는 범주의 선천성을 말하면서도 범주의 출처와 관련하여 판단에서 범주가 도출되는 것이지 범주에서 판단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낸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판단이 판단될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범주 자체가 범주가 적용될 내용까지 창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범주에서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서 범주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범주가 인식의 형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다. 칸트는 범주를 사고의 형식이라고 단정하고 판단에 나타난 사고의 기능을 살핀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의도는 인식이 오성의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의도를 오해하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범주를 통해서 경험적 인식에 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 범주가 판단에서 도출되었다기보다는 범주 때문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칸트의 선천적 판단을 모두 인정할 때조차 칸트의 범주론에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사고의 기능들이 모두 열거되었는가의 물음이다. 만약 사고의 기능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칸트가 말하는 판단의 형식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칸트가 판단의 선천성을 순수하게 연역적으로 주장했다면 이것은 진리 정합설¹⁰⁰⁾의 문제를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칸트의 선천성 자체가 모순이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결국 귀납적 추론방식에 따라서 범주를 도출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자발적 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범주의 완전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오성 속에 이러한 사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주는 경험적 판단을 기회로 하여 정신의 활동들을 주목하여 이끌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사유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정신에 심어져 있는 법칙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만 획득되는 것이다.¹⁰¹⁾

범주의 적용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은 선형적 연역의 주제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범주를 통해서만 인간이 직관 일반에 대하여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인식에 있어서 범주가 없다면 표상들의 종합이 통일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주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나아가 범주를 사용할 때 경험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때 범주가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범주가 순수한 개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범주가 경험적 개념이라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가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질료적 의미의 무수한 수를 가지게 되어 체계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범주가 경험적 개념이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범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학문의 근저에 경험의 개연적 지식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학문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범주는 오성의 형식으로 지각된 표상들 일반이라는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칸트 철학은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

100) 진리 정합설은 무모순성과 체계 내의 일관성을 진리의 척도로 본다. 그러므로 범주 자체의 타당성을 묻지 않고 범주 사용의 타당성을 논하고 있는 범주의 선형적 연역은 진리 정합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101) Kant, Immanuel,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 in: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Bd. 5,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8 참조.

면, 범주가 개념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개념의 내용을 주는 표상들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직관의 표상들에 대하여 종합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지 개념에서 바로 직관의 표상들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상들을 종합하는 구상력의 작용이 범주의 적용에 앞서 필요하다.

칸트에 의하면, 인식은 직관과 개념이라는 구성요소를 필요로 하고, 인식작용의 측면에서 보면 종합과 통일이라는 작용이 필요하다. 종합은 감성에 속하는 구상력이 수행하고, 통일은 자기의식인 통각이 수행하는데, 이때 통일과 종합의 형식이 바로 오성에 속하는 범주이다. 이와 같이 감성과 오성의 작용이 인식에 모두 필요하긴 하지만, 오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생산적 구상력에 대한 고찰에서도 드러난다. 생산적 구상력은 자발적으로 종합을 수행하지만 전적으로 생산적 구상력에 의해서 종합하는 것은 아니라 범주에 따라서 직관 일반의 개념을 산출한다. 이러한 점에서 범주는 생산적 구상력의 선험적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칸트는 범주의 적용범위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로크의 내감을 비판하여 오성의 통각을 내감에서 분리한다. 이것은 개념을 산출하기 위해서 감각을 통해서 얻은 표상들을 종합하고 통일하는 각각의 과정 속에서 오성과 감성의 역할을 구분함을 의미한다. 칸트가 말하는 경험적 인식은 주관의 통각에 의해서 감성으로 받아들인 표상들을 인식의 틀인 범주를 적용하여 표상들을 통일할 때 완료된다. 따라서 자기의식인 통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형식을 나타내는 범주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종합과 통일이라는 인식 과정 내에서 범주를 고찰함으로써 범주가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인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범주는 경험적 인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앞선 선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관 일반의 종합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기능을 한다. 칸트는 범주의 이러한 선험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감성의 경험적 직관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주가 적용되는 범위의 한계를 그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적 인식을 하는데 있어서 오성의 자발성과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범주라고 말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일차 문헌

Kant, Immanuel,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in: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Bd. 9,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_____, *De mundi sensibilis atque intelligibilis forma et principiis*, in: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Bd. 5,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들』, 최소인 옮김, 이제이북스, 2007).

_____, *Kritik der reinen Vernunft*, herausgegeben von Raymund Schmid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1990(『순수이성 비판』, 최재희 옮김, 박영사, 2005;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8).

_____, *Prolegomena zu einer jeden künftigen Metaphysik, die als Wissenschaft wird auftreten können*, in: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Bd. 5,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2. 이차 문헌

- 강영안, 「칸트의 초월철학과 형이상학」,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 겔트제처(Geldsetzer, Lutz), 『논리학』, 문성화 옮김, 계명대학교출판부, 2002.
- 김수배, 「칸트철학의 선구자 볼프」, 『칸트와 그의 시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 김영례, 「칸트 인식론에서의 선형적인 주관성」, 한단석 외 공저, 『칸트철학사상연구』, 형설출판사, 1995.
- 김정주, 「데카르트와 칸트의 “Cogito”」,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 _____, 『칸트의 인식론』, 철학과현실사, 2001.
- 김진, 『선형철학과 요청주의』, 울산대학교출판부, 1999.
- 들뢰즈(Deleuze, Gilles), 『칸트의 비판철학』, 서동욱 옮김, 민음사, 2006.
- 문성학, 『칸트의 인간관과 인식존재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 바움가르트너(Baumgartner, H. M.),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읽기』, 임혁재·맹주만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4.
- 박진, 「칸트에 전해진 중세 스콜라철학의 유산」,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 백종현, 「로크와 칸트에서 ‘실재하는 사물」, 『토마스에서 칸트까지』, 한국칸트학회 엮음, 철학과현실사, 1999.
- _____, 『존재와 진리』, 철학과현실사, 2008.
- _____, 「칸트: 현상의 존재론」,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 손봉호, 「칸트의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 손승길, 「칸트의 선형적 분석론」, 『인문과학연구』,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94.
-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들·명제에 관하여』, 김진성 역주, 이제이북스, 2008.
- 오은택, 「칸트에서 범주의 선형적 연역」,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임병수, 『논리학』, 형설출판사, 1996.
- 질송(Gilson, Etienne), 『중세철학입문』,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7.
- 최인숙, 「칸트의 오류주리론 — 『순수이성비판』의 초판과 재판에서의 영혼론의 오류주리에 대하여」, 『칸트와 형이상학』, 한국칸트학회 엮음, 민음사, 1995.
- 카울바하(Kaulbach, F.), 『칸트 비판철학의 형성과정과 체계』, 백종현 옮김, 서광사, 2006.
- 케른(Kern, Iso), 『후설과 칸트』, 배의용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1.
- 괴르너(Körner, S.), 『칸트의 비판철학』, 강영계 옮김, 서광사, 1997.
- 크로너(Kroner, Richard), 『칸트: 칸트에서 헤겔까지1』, 연효숙 옮김, 서광사, 2007.
- 하이데거(Heidegger, Martin),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6.
- 한단석, 『칸트 ‘순수이성비판’의 새로운 이해』,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2003.
- 한자경, 『칸트 철학에의 초대』, 서광사, 2007.
- 회페(Höffe, Otfried), 『임마누엘 칸트』, 이상현 옮김, 문예출판사, 1998.
- Broad, C. D., *Kant : An Introduction*, edited by C. Lew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8(브로드, 『칸트 철학의 분석적 이해』, 하영석·이남원 옮김, 서광사, 1999).
- Eisler, Rudolf, *Kant Lexikon*, Georg Olms Verlag, Hildesheim · New York, 1977.
- Wilkerson, T. E.,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 Commentary for Students*, Clarendon Press, Oxford, 1976(윌커슨,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배학수 옮김, 서광사, 1999).

Zusammenfassung

Eine Untersuchung über die Kategorienlehre Kants

Yeong-Chae Go
(Jeju Nationale Universität)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die Kategorienlehre Kants. Kant zufolge ist die Kategorie ein reiner Verstandesbegriff und sie ist auch als der Ursprung allen Begriffen zu verstehen. Kant versucht in sein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die Herkunft der Kategorien und ihre Rolle zu erschließen. So beschäftigt sich Kant in der 'Analytik der Begriffe' von "Kritik der reinen Vernunft" mit der Deduktion der Kategorien. Er unterscheidet dabei die metaphysische Deduktion der Kategorien von der transzendentalen Deduktion der Kategorien. Im Laufe dieser Untersuchung werden wir feststellen, beide Deduktionen der Kategorien zeigen uns nun die Grenze des Verstandes. In diesem Sinne darf die Deduktion als eine Kritik des Verstandes bezeichnet werden.

Das Wort 'Kategorie' hat Kant eigentlich von Aristoteles übernommen. Aber Aristoteles konnte Kants Einschätzung nach solche Kategorien nicht deutlich behandeln. Kants Unternehmen ist nichts anderes als die systematische Begründung der Gültigkeit der Kategorien, sozusagen Deduktion der Kategorien. Es geht bei diesem Unternehmen Kants um die Deduktion der Kategorien. Die Deduktion der Kategorien ist sozusagen eine Kritik an das Vermögen des Verstandes, das Kant persönlich im Geiste der Aufklärung

verweigert und kritisiert. Diese Kritik an den Verstand darf auch als die Kritik an die Vernunft verstanden werden, daran sowohl Rationalisten als auch Empiristen interessiert sind. In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untersucht Kant durch das Auseinandersetzen mit der Kategorien die Herkunft, Methode und Grenze der Erkenntnis. Das meint, daß sich Kants Kategorienlehre mit der objektiven Gültigkeit der Erkenntnis beschäftigt.

Zwar behandelt die vorliegende Arbeit Kants Kategorienlehre, aber dabei akzeptiert sie seine Kategorienlehre einfach nicht. Obwohl Kant sehr ausführlich über die Kategorie erklärt und dargestellt hat, aber man kann dabei gewissermaßen etliche Frage stellen, ob Kants Darstellung über Kategorien zweifelsohne übernommen werden könnte.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besonders Kants Kategorienlehre in zwei Punkte. Erstens wird zunächst hier die erkenntnistheoretische Herkunft der Kategorien untersucht, dabei wird die Bedeutung und der Sinn der transzendentalen Erkenntnis und ihre Charaktere untersucht. Hier wird auch untersucht, wie der Verstand als Ort der Kategorien funktioniert. Zumal wird hier erklärt, wie Kategorien aus der Urteilstafeln abgeleitet werden können. Zweitens wird nun die transzendente Deduktion der Kategorien in bezug auf dem Gebrauch der Kategorien untersucht. Insbesondere wird hier die Einheit der transzendentalen Apperzeption, die Beziehung des Gebrauchs der Kategorien mit der sinnlichen Anschauung und die transzendente Synthesis der produktiven Einbildungskraft, d.h. die Beziehung der Apperzeption mit der Einbildungskraft behandelt.

Blickt man auf die vorliegende Arbeit zurück, so muß man zunächst feststellen, daß Kants Unternehmen war, die Rolle der Kategorien und ihre objektive Gültigkeit auf die Anschauung herauszufinden und festzumachen. Kant ist der Meinung, daß die Synthesis der Vorstellungen in die Einheit der Apperzeption nicht erreichen könnte, wenn es bei der Erkenntnis keine Kategorien gäbe. Erst durch den Gebrauch der Kategorien kann man die

Erfahrung, d.h. die objektive Erkenntnis im Sinne Kants haben. Kant weist dabei auch seiner Transzendentalphilosophie die Aufgabe zu, die apriorischen Bedingungen der Erkenntnis ausfindig zu machen. Dabei fällt sogleich auf, daß er glaubt, die Kategorien können nur auf die Vorstellungen von Anschauungen angewandt werden. Aber dies mag nicht, daß die Kategorien auch auf die transzendenten Vorstellungen, d.h. Dinge an sich angewandt werden könnten. In diesem Fall kann die Erkenntnis keine allgemein Gültigkeit und keine Systeme der Wissenschaft bekommen. Kants Kategorienlehre stellt dabei fest, daß die Erkenntnis über die Grenze der Erfahrung nicht überschreiten muß. Sonst bekommt solche Erkenntnis nur bloßes Scheinbild, das Kant in der 'Transzendentalen Dialektik' untersucht.

Im Lauf dieser Untersuchung wird darauf hingewiesen, daß die Kategorien nur innerhalb des Erfahrungsgebiet, d.h. nur in bezug auf die Anschauungen benutzt werden müssen. Kant zufolge bedarf eine allgemein gültige Erkenntnis, d.h. die transzendente Erkenntnis zwei Stämme im Sinne von der Anschauung und dem Gedanke.

In der Perspektive der Erkenntnisakten betrachtet aber, die Synthesis der Vorstellungen führt von der Einbildungskraft durch, während die Einheit von der Apperzeption als Selbstbewußtsein durchführt. Trotzdem betont Kant, daß bei der Synthesis durch Einbildungskraft und der Einheit der Apperzeption der reine Verstandesbegriff, d.h. Kategorie wichtige Rolle spiele.